

정책연구자료 2006-1

200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6. 11

이태열·최영목·조혜원

김진억·박정희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머 리 말

국내 보험산업은 2006 회계년도에 자산규모가 300조원을 돌파함으로써 금융권 내에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였으며, 이제는 사회 안전망 기능의 수행을 통하여 국가적 후생수준을 향상시키는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위상정립에도 불구하고 국내 보험시장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참여주체들이 맡은 바 업무에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체질을 개선함은 물론이고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의 도전에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2006년에는 저금리 지속에 따른 투자영업환경 부진과 질병, 교통사고 등 다양한 리스크 상승에 따른 보험금 지급부담 증가로 보험회사의 수익 창출에 부정적인 요인들이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상황은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수익성 위주의 내실 있는 경영전략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으며, 그러한 경영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시장 전망을 필요로 하고 있다.

보험수요를 전망함에 있어서는 각 보험종목에 대한 소비자 특성이나 제도의 변화와 함께 경제 및 금융시장의 주요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심도 깊은 분석이 요구된다. 이에 이 보고서는 이론적 접근과 함께 다년간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주요 종목에 대해 전망을 실시하였으며, 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회사들의 주요 경영과제를 제시하였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변화하는 환경하에서 보험회사들의 유효한 경영전략 수립에 활용되기를 바란다.

이 보고서의 작성과정에서 원내외의 세미나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완결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준 연구자 여러분들과 유익한 조언과 자문을 아끼지 않았던 보험산업 내 많은 분들께 고마움을 전한다.

2006년 11월
보 험 개 발 원
원장 김 창 수

목 차

I. 경제·금융환경 변화	1
1. 세계 경제	1
2. 국내 경제	7
II. 보험제도 변화	14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	14
2. 보험업법 개정	19
3.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논의	21
4. FTA 협상의 전개	23
5. 리스크 중심 감독 체제 시작	25
III. 보험산업 현황	28
1. 주요지표 동향	28
2. 생명보험	30
3. 손해보험	49
IV. 보험산업 전망	67
1. 주요지표 전망	67
2. 생명보험	73
3. 손해보험	85
V. 보험산업 주요과제	112
1. 現 보험산업 평가	112
2. 주요 경영 과제	114

표 목 차

<표 I-1>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	4
<표 I-2> 2006년 경제활동 및 지출항목별 성장률	8
<표 I-3> 2007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	9
<표 I-4> 2007년 대외거래 전망	11
<표 I-5> 2007년 물가 및 금융변수 전망	13
<표 III-1> 생·손보사 수입보험료 추이	28
<표 III-2> 생·손보사 총자산 추이	29
<표 III-3>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I)	30
<표 III-4>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II)	31
<표 III-5>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구성비 추이	32
<표 III-6>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추이	33
<표 III-7> 생명보험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추이	35
<표 III-8> 생명보험 신계약액 추이	37
<표 III-9> 생명보험 보유계약액 추이	38
<표 III-10> 생명보험 지급보험금 추이	40
<표 III-11> 생명보험 수지차 추이	42
<표 III-12> 생명보험 자산운용 실적	43
<표 III-13> 생명보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추이	44
<표 III-14> 생명보험 경영효율 주요 지표	46
<표 III-15> 생명보험 모집형태별 초회 수입보험료 비중 추이	47
<표 III-16> 생명보험 모집조직 추이	48
<표 III-17>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50
<표 III-18>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현황	51
<표 III-19> 손해보험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추이	55
<표 III-20> 손해보험 수지차 추이	56
<표 III-21> 손해보험 발생손해액, 사업비, 당기순이익 추이	57

<표 III-22> 손해보험 총자산 추이	58
<표 III-23> 손해보험 자산운용율 및 자산운용수익률 추이	59
<표 III-24> 손해보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추이	61
<표 III-25> 손해보험 합산비율 추이	62
<표 III-26> 손해보험 손해율 추이	63
<표 III-27> 손해보험 종목별 손해율 추이	63
<표 III-28> 손해보험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추이	65
<표 III-29> 손해보험 모집조직 생산성 추이	66
<표 IV-1> FY2007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전망	68
<표 IV-2> FY2007 보험침투도 전망	70
<표 IV-3> FY2007 1인당 보험료 전망	71
<표 IV-4> FY2007 생·손보 구성비 전망	71
<표 IV-5> FY2007 보험산업 총자산 전망	72
<표 IV-6>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전망	75
<표 IV-7> 개인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전망	77
<표 IV-8> 생명보험 종목별 총지급보험금 전망	81
<표 IV-9> 개인보험 종목별 총지급보험금 전망	83
<표 IV-10>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 전망	84
<표 IV-11>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87
<표 IV-12> 손해보험 종목별 점유율 전망	88
<표 IV-13> 화재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89
<표 IV-14> 화재보험 손해율 전망	90
<표 IV-15> 해상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91
<표 IV-16> 해상보험 손해율 전망	92
<표 IV-17> 적하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93
<표 IV-18> 선박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94
<표 IV-19> 항공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95
<표 IV-20>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96

<표 IV-21> 자동차보험 손해율 전망	98
<표 IV-22> 보증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99
<표 IV-23> 보증보험 손해율 전망	100
<표 IV-24> 특종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101
<표 IV-25> 특종보험 손해율 전망	102
<표 IV-26> 기술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103
<표 IV-27> 배상책임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104
<표 IV-28> 상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105
<표 IV-29> 종합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106
<표 IV-30>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107
<표 IV-31> 장기손해보험 손해율 전망	108
<표 IV-32> 개인연금 원수보험료 전망	110
<표 IV-33>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 원수보험료 전망	111
<표 V-1> 주요 보험종목의 연도별 성장기여율	112
<표 V-2> 보험산업의 당기순이익 추이	113

그림 목 차

<그림 I-1> 세계 경제성장률 추이	2
<그림 I-2> 미 달러화 명목실효환율 지수	6
<그림 I-3> 주요 국제 유가 추이	7
<그림 I-4> 국내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8
<그림 I-5>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및 GDP성장률	10
<그림 IV-1>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규모 및 성장률 추이	69
<그림 IV-2>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74
<그림 IV-3> 개인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76
<그림 IV-4> 단체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80

<그림 IV-5> 생명보험 총지급보험금 추이	82
<그림 IV-6> 단체보험 지급보험금 추이	84
<그림 IV-7>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87
<그림 IV-8> 손해보험 종목별 점유율 추이	88
<그림 IV-9> 화재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89
<그림 IV-10> 화재보험 손해율 추이	90
<그림 IV-11> 해상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91
<그림 IV-12> 해상보험 손해율 추이	92
<그림 IV-13> 적하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93
<그림 IV-14> 선박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94
<그림 IV-15> 항공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95
<그림 IV-16>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97
<그림 IV-17> 자동차보험 손해율 추이	98
<그림 IV-18> 보증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99
<그림 IV-19> 보증보험 손해율 추이	100
<그림 IV-20> 특종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101
<그림 IV-21> 특종보험 손해율 추이	102
<그림 IV-22> 기술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103
<그림 IV-23> 배상책임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104
<그림 IV-24> 상해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105
<그림 IV-25> 종합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106
<그림 IV-26>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108
<그림 IV-27> 장기손해보험 손해율 추이	109
<그림 IV-28> 개인연금 원수보험료 추이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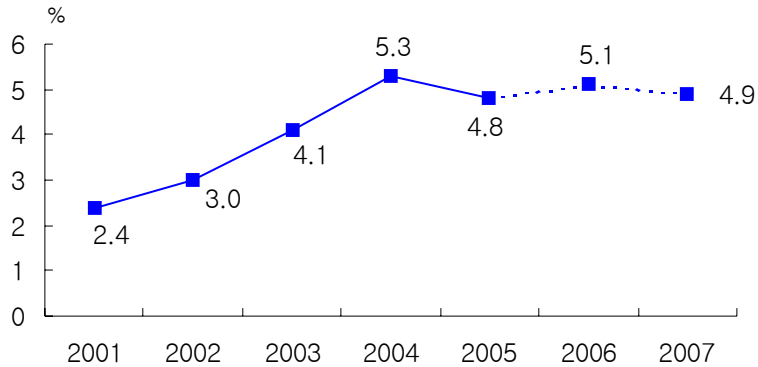
I. 경제·금융환경 변화

1. 세계 경제

가. 주요 국가에 대한 경기 전망

- IMF에 따르면 세계경제는 고유가 속에서도 2004년 5.3%, 2005년 4.8%에 이어 2006년에는 5.1%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2007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4.9%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예상보다 크지 않아 정책금리 인상 압력이 낮아지고 있으며 주택시장의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의 소비 둔화세가 소폭에 그칠 전망이다
 - 2007년 미국 경제의 연착륙은 중국, 일본 등의 수출 및 투자 성장세를 뒷받침하며 세계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중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일본과 유로 경제는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경제는 소비가 견실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투자 및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2007년에도 10.0% 수준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전망이다
 - 유로경제는 수출과 투자 중심의 양호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일본경제는 소비 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투자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림 I -1> 세계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Sep, 2006.

1) 미국

○ 국제통화기금(IMF)의 보고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006년 3.1%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며 2007년에는 2.7% 수준으로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2006년 8월까지 주거용 건축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3/4분기 GDP성장률이 3년래 최저치인 1.6%를 기록하였으나, 9월 들어 주택 판매가격이 개선되는 등 경기 둔화 속도가 완화되고 있음.
- 인플레이션 상승의 주요인이었던 국제유가(WTI)는 2006년 7월에 배럴당 74.4달러까지 상승한 이후 10월에는 58.7달러로 하락하면서 안정세를 유지함.
- 연준의 FOMC에서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정책금리를 5.25%에서 세 차례 동결

2) 중국

- 중국경제는 소매판매 증가, 수출 증가세 유지 등에 따라 2007년에도 10.0%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경제는 임금 상승, 농촌 발전계획 등에 따라 소매판매가 지속적으로 촉진되고 수출도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감에 따라 2006년 1/4분기 10.3%, 2/4분기 11.3%, 3/4분기 10.4%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함.
- 2007년에는 중국정부의 과잉투자 억제책 등으로 인해 성장률이 다소 둔화될 가능성도 있지만 여전히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3) 일본

- 일본경제는 장기간 경기침체에서 탈피하여 2004년 이후 2006년까지 3년 연속 2%대의 성장률을 달성하였으며, 2007년 성장률은 올해에 비해 다소 낮아지기는 하겠지만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부진하던 일본경제는 수출 회복에 따른 광공업생산 증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회복을 바탕으로 2004년 2.3%, 2005년 2.6%의 성장률을 달성하였고, 2006년에도 2.7%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됨.
- 2007년에는 미국 경기의 연착륙에 따른 수출둔화의 가능성이 있으나 2.1%의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3) 유로

- 유로지역은 2001 ~ 2005년중 경기부진이 지속되었으나 2006년에는 2.4%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2007년에는 올해보다 다소 낮아지기는 하겠지만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유로지역은 2005년까지 저성장세를 지속하였으나 유로화 출범 이후 역내 무역 활성화, 노동시장 유연화, 규제 완화 등의 경제체질 강화에 힘입어 2006년에는 2.4%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됨.
- 2007년에는 개선된 경제체질을 바탕으로 유로화의 강세 속에 수출보다는 민간소비가 성장을 견인하면서 2.0% 수준의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표 I -1>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구 분	2006년(E)	2007년(F)
세 계	5.1	4.9
O E C D	(3.2)	(2.5)
미 국	3.1(3.3)	2.7(2.4)
일 본	2.7(2.8)	2.1(2.0)
E U	2.4(2.6)	2.0(2.2)
독 일	2.0(2.6)	1.3(1.8)
영 국	2.7(2.6)	2.7(2.6)
프 랑 스	2.4(2.1)	2.3(2.2)
중 국	10.0	10.0

주 : 1) IMF의 자료를 주로 참조하였으며, ()안의 수치는 OECD자료임.

2) IMF의 세계 전체 성장률은 PPP방식의 추정치임.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Sep. 2006; OECD, OECD Economic Outlook, Nov.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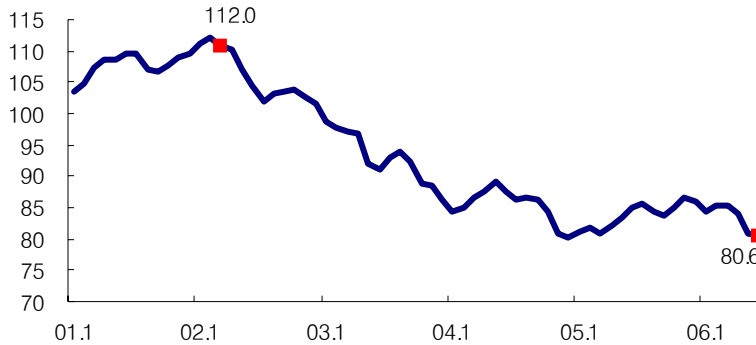
나. 국제 금융 및 원유 시장

- 2006년 상반기까지 주요국들은 유가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압력에 따라 정책금리를 인상하였으나, 2007년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와 소폭의 경기둔화 등으로 정책금리를 동결하거나 내릴 가능성이 높음.

- 미국은 2003년 6월 1.00%에서 2006년 6월 5.25%까지 정책금리를 인상하였으나 3/4분기 들어 원자재가 하락, 주택경기 둔화 등으로 정책금리를 동결하였음.
 - 미국의 정책금리 수준은 EU, 일본 등과 비교시 크게 높은 수준이므로 내년에는 정책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거나 내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됨.
 - 경기회복세에 따라 일본은 0.00%에서 2006년 6월 0.25%로 정책금리 인상하였고 유로의 경우에도 2005년 12월 2.00%에서 2006년 8월에는 3.00%까지 정책금리를 인상하였음.
 - 이들 지역은 내년 경기회복세 유지와 함께 추가적으로 정책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상품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2007년에는 미국과 일본, 유로지역 등의 주요 국가와의 금리차가 축소되어 달러화 약세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2005년 7,915억 달러, 2006년 상반기까지 4,316억 달러를 나타내어 달러 리사이클링(dollar recycling)¹⁾에도 불구하고 미 달러화의 실효환율지수는 2002년 2월 112.0에서 2006년 6월 80.6으로 하락하여 글로벌 달러화 약세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 2007년에는 미국 경제가 소폭 둔화되면서 정책금리 인상을 중지하거나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일본, 유로지역 등 주요국과 미국의 금리차가 축소되면서 국제자본의 미국유입이 둔화되어 달러화 약세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1) 국제무역을 통해 미국을 빠져나간 달러가 미국 채권과 같은 자산에 투자하기 위해 다시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현상을 지칭함.

<그림 I-2> 미 달러화 명목실효환율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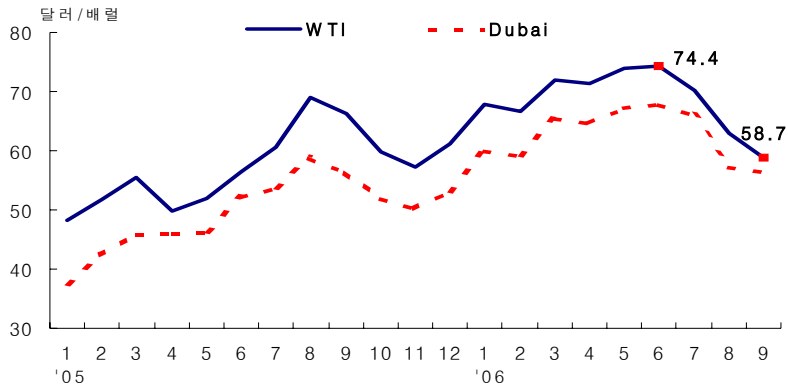


주 : 1) 캐나다, 유로지역, 일본, 영국, 스위스, 호주, 스웨덴 등 7개 통화에 대한 가중평균환율지수, 명목기준
2) 1973년 3월을 100으로 하여 산출한 지수임.

자료 : FRB

- 2006년 6월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세로 전환하였으나 유가상승을 야기하는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향후 유가는 65달러 전후를 유지할 전망이다.
 - 나이지리아와 알래스카 유전의 공급차질 일부 회복, 이란 핵문제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국제유가(WTI)는 2006년 6월말 배럴당 74.4달러에서 9월말에는 58.7달러로 하락.
 - 그러나 중국 등의 경제성장에 따른 석유수요 증가세 지속, OPEC의 유가하락 방어를 위한 감산 가능성, 이란 및 이라크의 지정학적 불안 요인 등 유가 상승요인이 여전히 존재함.
 - 이에 따라 2007년 국제유가(WTI 기준)는 2006년 평균 수준보다 낮겠지만 2005년 평균 수준인 57.3달러보다 높은 배럴당 65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I-3> 주요 국제 유가 추이



2. 국내 경제

가. 경제 동향 및 전망

- 2006년 국내경제는 1/4분기 6.1%의 높은 성장률을 보인 이후 건설투자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민간소비도 둔화되면서 따라 2/4분기 이후 경기둔화가 가시화됨.
 - 경제활동별 성장률에서는 수출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제조업의 성장률이 가장 높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과 건설업의 성장률이 매우 낮아 경제 부문간 성장 차별화를 나타내고 있음.
 - 지출항목에서 민간소비의 성장 둔화, 건설투자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반해 설비투자는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2005년에는 내수부문이 전체 GDP성장률을 견인하였으나 2006년 1/4분기 이후 내수 증가세가 둔화됨으로써 GDP성장률도 3/4분기에는 4.6%를 기록하여 경기둔화세가 뚜렷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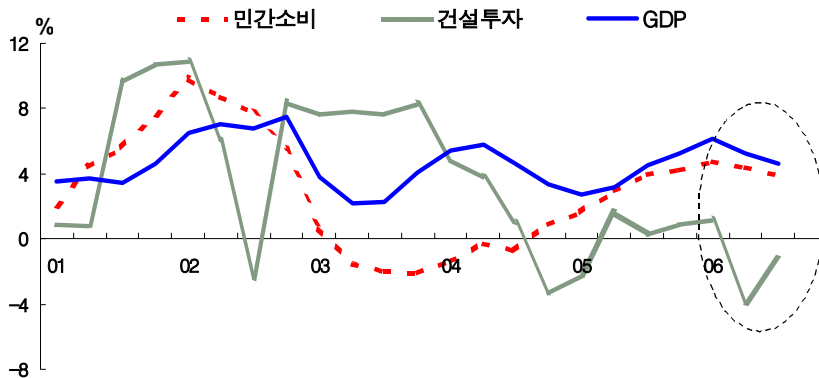
<표 I-2> 2006년 경제활동 및 지출항목별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

	1/4분기	2/4분기	3/4분기
국내총생산(GDP)	6.1	5.3	4.6
금융보험업	5.2	5.3	3.9
제조업	9.9	9.3	8.6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4.5	3.6	5.3
건설업	1.8	-3.2	0.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4.0	3.7	2.9
민간소비	4.8	4.4	3.9
설비투자	6.9	7.4	9.6
건설투자	1.2	-3.9	-1.3
재화수출	11.5	15.9	12.2
재화수입	12.3	13.6	11.5
내수(재고제외)	5.9	3.9	3.7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그림 I-4> 국내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 2007년에는 내수경기가 상반기에 둔화된 후 하반기에 회복하면서 GDP 성장률은 상저하고의 패턴을 보일 전망이며, 전반적으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성장세 둔화에 따라 실질 GDP성장률은 올해보다 낮은 4.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민간소비 증가율은 상반기에 둔화된 이후 하반기에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전반적으로 3.9%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올해보다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설비투자는 내수 둔화에 따라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4.7%의 증가율을 기록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 건설투자 증가율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공공부문 중심의 투자 확대에 의하여 올해보다 소폭 증가한 1.4%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03년 이후 경기의 순환주기 및 성장률 변동 폭이 감소하는 경기소순환 구조가 지속되면서 보험산업에 대한 실물경기의 영향력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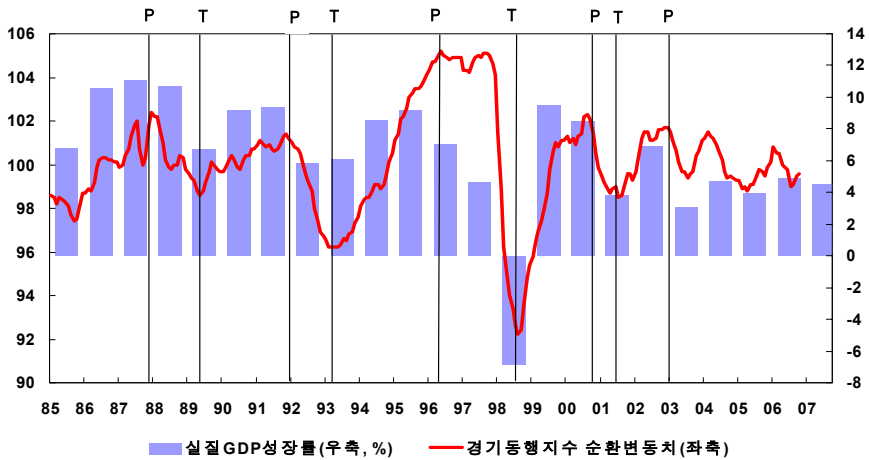
<표 I -3> 2007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구 분	2004	2005	2006(E)	2007(F)
실질 GDP	4.7	4.0	4.9	4.5
(경상 GDP)	7.5	3.5	4.6	4.4
민간소비	-0.3	3.2	4.2	3.9
설비투자	3.8	5.1	7.5	4.7
건설투자	1.1	0.4	-1.2	1.4
총수출	21.0	9.7	12.6	9.5
총수입	13.8	6.1	10.2	9.7

주 : 보험개발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그림 I -5>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및 GDP성장률



나. 대외 거래

- 상품수지는 2006년 약 227억달러에서 2007년에는 약 192억달러로 축소될 전망
 - 2006년도 수출은 전년에 비해 15.6% 증가한 약 3,288억달러, 수입은 전년에 비해 21.8% 증가한 약 3,182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 2007년에도 세계경제의 양호한 성장에 따라 수출증가율이 14.5%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보다 높은 17.8%를 기록하면서 상품수지 흑자폭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경상수지는 2006년 16.1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2007년에는 53.2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06년 경상수지는 1~10월까지 서비스수지의 적자 폭이 확대되면서 16.8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여 전년보다 크게 감소함.
- 2007년에는 상품수지 흑자 폭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 모두에서 적자가 확대되면서 경상수지가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최초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표 I-4> 2007년 대외거래 전망

구 분	2004	2005	2006(E)	2007(F)
경상수지(억달러)	281.7	149.8	16.1	-53.2
상품수지(억달러)	375.7	326.8	227.1	192.2
수출(억달러)	2,538.4	2,844.2	3,287.9	3,764.6
수출 증가율(%)	31.0	12.0	15.6	14.5
수입(억달러)	2,244.6	2,612.4	3,181.9	3,748.3
수입증가율(%)	25.5	16.4	21.8	17.8

주 : 보험개발원 추정 및 전망치임.
 자료 : 한국은행, 산업자원부

다. 물가 및 금융

- 2007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0% 내외로 2006년 추정치(2.5%)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06년에는 연초 국내경기 회복으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 증대, 고유가, 공공요금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추정됨.
- 2007년에는 유가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의 물가상승 요인이 있지만 국내경기 둔화에 따른 하락압력도 상존하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보다 다소 상승한 3.0%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06년에는 정책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가 하락하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었으며, 2007년에는 금리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상존하면서 국고채 수익률은 올해와 비슷한 4.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미국의 금리인상 등에 기인하여 콜금리가 2004년 11월 3.25%에서 2006년 8월 4.50%까지 인상됨.
 - 그러나 2006년 1/4분기 이후 경기둔화가 가시화됨에 따라 장기금리가 유지 또는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장단기금리차가 2005년 11월 1.6%에서 2006년 10월 1.2%로 축소됨.
 - 2007년에는 경기둔화 전망에 따른 금리하락 요인과 주택가격 불안정성으로 인한 금리 상승 요인이 상존하면서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전반적으로 원화 절상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 2007년도에는 올해보다 하락한 달러당 900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07년에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전망됨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 지속 등에 따른 글로벌 달러화 약세로 인해 원/달러 환율은 올해보다 다소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
 - 결국 원/달러 환율의 결정은 국내요인보다는 미국의 쌍둥이 적자와 같은 대외적인 문제가 좌우할 것으로 예상됨.

<표 I -5> 2007년 물가 및 금융변수 전망

(단위: %)

구 분	2004	2005	2006(E)	2007(F)
소비자물가(상승률)	3.6	2.8	2.5	3.0
국고채3년(평균)	4.1	4.3	4.8	4.9
원/달러(평균)	1144.7	1024.3	950.0	900.0
실업률	3.7	3.7	3.5	3.6

주 : 보험개발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Ⅱ. 보험제도 변화

- 2007년도 주요 보험제도 환경변화로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논의, FTA 협상 전개, 리스크 중심 감독 체제 시작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

- ※ 재정경제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여 6월 30일 입법예고를 하였음.

1) 개요

- 재정경제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여 6월 30일 입법예고를 하였음.
- 2006년 2월 17일 동 법 제정을 위한 기본방안을 발표한 이 후,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왔음.

2) 통합법 제정안의 주요내용

- (1) 자본시장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적 제약을 철폐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취급과 설계를 허용하고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투자자 보호
- (2)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이 법상 금융투자업 규율을 적용함으로써 모든 금융투자상품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자를 보호

- (3) 금융투자회사가 6가지 금융투자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대형화·겸업화된 투자은행의 출현 기반을 마련
- (4) 금융투자회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투자자의 편의를 제고
- (5) 투자권유와 관련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선진화
- (6) 공시제도를 개선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
- (7) 기타 자본시장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 (8) 기타 법률의 통합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

3)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거나 새롭게 추가된 내용

- (1) 금융투자상품을 정의함에 있어 '원본' 개념과 '회수금액'을 시행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위임근거를 마련
 - (원본) 소비되는 금액(보험상품의 위험보험료·사업비 등)은 원본에서 제외하고, 특별계정으로 투자되는 금액만을 원본으로 포함하여 전통적 보험상품이 투자성을 갖지 않음을 명확히 함.
 - (회수금액) 해지수수료, 세금 등을 포함하여 회수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전통적 예금 등이 투자성을 갖지 않음을 명확히 함.
- (2) 일반적인 신탁업과 달리 원본이 보장되는 개인연금·연금신탁은 금융

투자업으로 보지 않되, 신탁업자만 취급할 수 있도록 동 법에 별도의 업규제를 마련

※ 다만, 2010년까지만 원본보전을 허용하기로 하였으므로('05.11월 금융규제 개혁방안) 그 이후에는 금융투자업(신탁업)으로 규율

(3)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 금지제도(투자자로부터 요청없이 방문·전화 등을 통해 투자 권유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장외과생상품)에 대해서만 적용

※ 보험계약(변액보험 포함)과 증권의 경우 동 규제의 대상이 아님.

(4) 투자자의 거부 의사에 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을 계속 투자권유 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사에 반하는 재권유 금지제도' 도입

(5) 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등 개별법상 단종 펀드에 대해서는 '공모펀드 및 일반투자자가 포함된 사모펀드'에 대해서만 통합법상 집합투자업 규율과 펀드 규율을 받도록 함.

※ 현재, 건교부, 산자부, 해수부, 중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

(6) 은행과 보험사 등이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에 대해서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이 법상 금융투자업 규제를 적용

(7) 통합법 시행일은 시장 참가자와 감독당국이 충분한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공포일로부터 1년 6월 후로 하고 기존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일괄 재인가·등록은 법 공포일 1년 후부터 법시행 전까지 6개월 동안 이루어지도록 함.

(8) 자율규제기관(협회)의 기능별 재편을 위하여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를 단일의 '금융투자협회'로 통합하는 방안으로 조문을 마련

※ 다만, 추후 업계간 자율적 합의가 이루어져 기능별 재편 방안이 마련 되면 이를 법안에 반영할 계획

(9) 금융투자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이용과 관련하여 소액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결제대상 금액은 고객예탁금(위탁매매 계좌내의 현금)으로 한정하여 증권의 가치변동 리스크의 전이가능성을 차단

- 대표금융기관(증권금융)이 금감위로부터 은행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받도록 함.

(10) 집합투자증권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설명서 제공 의무를 폐지하여 투자자에 대한 투자정보 제공을 증권신고서 제출시 투자설명서(기존의 사업설명서)로 일원화

(11) 실효성이 크게 감소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주식 직접투자 제한을 폐지하되 선진국 수준의 내부통제 장치*를 도입

* 자기명의로 1인 1계좌만 허용하고 매매내역을 정기적으로 소속회사에 통지하도록 하며 위반시 형벌로 제재하는 등 엄격한 통제 장치 부과

(12)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에만 적용되는 대주주 변경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승인제도를 투자일임·자문업자·신탁회사에도 적용하여 건전 경영을 유도

- (13)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명칭을 「한국거래소」로 변경하고 「증권예탁결제원」의 명칭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변경
- (14) 법 위반시 형벌 수준을 은행법 수준으로 강화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함.

○ 동법 제정에 따른 금융법의 체계 변화

- 동법이 제정되면 자본시장은 총 10편 420개 조항으로 구성된 단일 법률의 규율을 받게 됨.
-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등 7개 법률이 폐지되고
- 여신전문금융업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산업발전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 9개 법률이 일부 개정됨.

○ 향후 추진 일정

-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금년 중 국회에 동법 제정안을 제출할 계획

출처 : 재정경제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2006. 6.29. 참조

2. 보험업법 개정

※ 재정경제부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2006년 10월 19일 입법예고를 하였음.

1) 개정 이유

- 보험사의 상품개발과 영업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보험사가 취급할 수 있는 업무영역을 넓히는 한편, 보험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사기조사체제를 확립하는 등 보험관련 제도를 선진화

2) 주요 내용

가. 보험사가 취급할 수 있는 겸영 및 부수업무 확대

- (1) 현재 보험사는 유동화자산 관리업무(당해보험사 보유자산에 한함)와 신탁업에 한정하여 다른 금융업무의 겸영이 가능하며 부수업무의 영위도 법령상 열거된 사항으로 제한
- (2)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례에 준하여 보험사에 게 허용되는 겸영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부수업무도 포괄적으로 허용
- (3) 보험사가 취급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여타 금융권과 합리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고 보험사의 대형화와 종합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나. 보험소비자에 대한 차등적이고 실효성있는 보호장치 마련

- (1) 현행 보험업법은 전문성 등에 기초한 보험소비자의 구분 및 차등적 보호장치를 두고 있지 않음.
- (2) 보험소비자를 일반소비자와 전문소비자로 구분하여 설명의무와 보호 범위 등을 차등화

다. 공시제도의 합리화

- (1) 비교·공시의 대상 및 내용이 획일적으로 한정되어 소비자의 보험상품 선택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 (2) 보험사가 금융감독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정하는 정보를 보험협회에 제공하도록 의무화

라. 상품개발시 금감위에 대한 사전 신고원칙을 사후 제출원칙으로 변경

- (1) 보험상품을 새로 개발한 경우 관련 기초서류의 변경내용을 금감위에 사전 신고하는 것을 원칙이었음.
- (2) 사후 제출을 원칙화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금감위에 사전 신고

마. 보험상품 기초서류 확인절차를 현행 2단계 중복확인에서 1단계만 거치도록 간소화

- (1) 독립계리업자와 보험요율산출기관의 확인 중 1개 절차만 보험사가 선택하도록 자율화

출처 : 재정경제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6.10.19. 참조

3.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논의

1) 검토배경

- 의료서비스 시장개방에 따른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 보험산업과 의료산업에서의 고용 창출, 공보험 중심의 보장성 강화의 한계 극복 등의 니즈로 인해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임.
- 의료서비스 소비자와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 억제,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절감 방안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요구됨.

2)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논의 내용

- 보건복지부 측의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은 민영의료보험의 보장성 한계 등의 이유로 정액형 보험상품으로 민영의료보험을 제한하고 있음.
 - 민영의료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 보장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법정본인부담금 보장을 제한
 - 법정본인부담금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과잉이용을 억제함이 목적이거나, 민영의료보험 보장이 과잉이용을 유발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우려하는 논리
- 그러나 보험업계 등에서는 법정본인부담금 보장 제한이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퇴보적 정책이며, 소비자들의 의료접근성 악화, 의료이용의 양극화, 의료비용부담 증가를 초래를 지적
 - 국민건강보험 재정악화 방지 방안을 소비자에 대한 보장범위를 축소 시키는 방향에서 찾기보다는 제도운용의 개선을 통해서 찾아야 함을

지적함.

- 민영의료보험 상품에 본인부담액을 설정하여 의료서비스의 과잉이용을 억제하고, 의료 이용 실적에 따라 의료보험료를 부과하는 할인할증제도의 도입으로 의료서비스 과잉수요 및 공급 문제 해소시킬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4. FTA 협상의 전개

※ 한국은 기존 칠레, 싱가포르, EFTA(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등과 FTA를 체결한 외에 지속적으로 FTA대상국을 넓히고 있음.

1) 한·미 FTA 협상

- 한·미 FTA 협상은 2006년 2월에 시작되어 6월 5~9일 미국 워싱턴에서 협정문 초안을 놓고 17개 분과별 제1차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7월 10~14일에 서울에서 제2차 협상이 진행된 후, 9월 현재 6~9일에 미국 시애틀에서 제3차 협상이 완료되었음.
- 현재 17개 분과 중 하나인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거래, 신금융서비스 개방 등이 주요 쟁점사항으로 논의되고 있음.
 - 금융서비스시장 개방방식과 관련해서는 개방분야를 일일이 열거하는 열거주의방식(positive approach)과 일단 개방하기로 한 업종에 대해서는 제한조치만을 열거하는 포괄주의방식(negative approach)의 적용형태 등에 대해 의견을 조율
- 한편, 최근 협상과정에서 우체국 보험과 민간보험회사간의 동등 대우와 관련한 한·미 FTA 협정의 적용문제가 제기됨.
- 미국의 경우 상대국에 대한 금융서비스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열거주의·포괄주의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이행하기로 약속한 의무규정과 합치되지 않는 '비합치조치들(Non-Conforming Measures)'을 FTA 금융

협정문에 포함시키고 있음.

- 미국의 금융서비스시장 관련 비합치조치는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시장접근의 세 가지 무역자유화 원칙을 중심으로 부속서(Annex) 형태로 명기되고 있음.

2) 한·유, 한·중, 한·뉴질랜드 등과 FTA 협상 논의

- 한국은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 등 4개국으로 구성된 남미 경제공동체(메르코수르·MERCOSUR)와 중국 등과는 FTA 전 단계인 공동 연구가 진행 중이며 EU(유럽연합)와는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의 예비협의를 마침.
- 뉴질랜드를 국빈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12월 8일 헬렌 클라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민간 연구기관간 공동 연구를 내년 상반기중 시작하기로 합의함.

5. 리스크 중심 감독 체제 시작

1) 지급여력제도의 선진화

① 현황

- 현행 EU식 지급여력제도는 IMF의 권고로 1999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2004년 3월부터 소정비율 100% 도달
 -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은 EU식 지급여력제도 방식을 준용하여, 비교적 단순한 방식으로 산출되고 있음.
 - EU는 "Solvency I"을 통하여 회원국에 지급여력제도에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EU 회원국은 현재 자체적인 지급여력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 또한, 은행권의 "신바젤협약"과 EU의 "Solvency II"등 각종 국제기구는 감독규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 중에 있는 바, 이에 국내 지급여력제도도 중장기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음.

② 문제점

- 현행 EU의 고정비율식 요구자본 산출방법은 적용이 수월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보험사의 실질적인 리스크를 반영치 못함.
 - 보험사별 요구자본의 형평성 및 비교가능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보험사 리스크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유인책이 못됨.
- 가용자본의 경우 위험의 완충장치로서 자본이 갖는 질적 수준을 고려하

지 않은 단순 가감 방식으로서,

- 이 경우 후순위채무 및 상환 우선주등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보험 산업 가용자본의 질적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 신종자본등 다양한 자본조달수단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추세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함.

2) 리스크평가제도(RAAS)정착

① 현황

- o 금융시장의 자유화, 종합화, 다양화 확대 추세에 따라 금융회사는 각종 리스크에 크게 노출되게 됨.
 - 따라서, 리스크의 적절한 관리는 금융회사의 존립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로 대두
 - 선진 금융감독당국은 금융회사의 리스크 노출정도와 리스크 관리능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검사업무에 활용하는 리스크 평가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 o 국내에서 시행중인 경영실태평가는 과거지향적·사후규제적 감독방법으로 미래 부실가능성을 평가·조치하기에는 부적절
 - 이에 보험감독당국은 「보험회사에 대한 리스크중심 감독 Master Plan(2003.3)」을 작성하고 이를 추진 중에 있음.
 - 현재 “리스크평가제도(RAAS)” 운영기준이 작성되었으며, 시범운영 및 보험업계의 의견수렴 중에 있음.

② 문제점

- 동 “리스크평가제도(RAAS)”는 “3 Pillar” 감독규제의 “Pillar II”의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임.
 - 따라서, 제도도입초기에 심층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방안 작성이 필수적임.
 - 또한, 현재의 “경영실태평가모형”과 상당부분 중복되므로 빠른 시간내에 통합운영방안이 필요함.
- RAAS제도의 핵심은 정성적 평가인 리스크통제기능 평가에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수준 등이 전문적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짐.
 - 그러나, 검사담당역의 새로운 제도에 대한 준비상태는 높지 않은 상태임.

Ⅲ. 보험산업 현황

1. 주요지표 동향

가. 수입보험료

- FY2005 보험산업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높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전년 대비 13.3% 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2006년 4~8월에도 13.1% 성장함.
- 2006년 4~8월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변액연금과 변액유니버설의 큰 폭의 성장에 힘입어 전년동기간 대비 12.9% 성장을 기록함.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통합보험을 중심으로 한 장기손해보험의 지속적인 성장에 힘입어 같은 기간 전년동기간 대비 13.6% 성장함.

<표 Ⅲ-1> 생·손보사 수입보험료 추이

(단위 : 억원, %)

연도 종목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2006.4~8
생명보험	473,643	490,668	503,925	537,506	614,722	259,698
	-8.3	3.6	2.7	6.7	14.4	12.9
손해보험	186,959	206,129	213,782	232,173	257,235	116,593
	10.9	10.3	3.7	8.6	10.8	13.6
합 계	660,602	696,797	717,707	769,695	871,957	376,291
	-3.6	5.5	3.0	7.2	13.3	13.1

주 :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2) 특별계정, 부수사업이 포함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총자산

- FY2005 보험산업 총자산 규모는 보험료수입의 증가와 투자영업이익의 확대에 힘입어 양호한 자산 증가를 보이면서 전년동기 대비 27.6%의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함.
 - 생명보험 총자산은 보험영업이익과 투자영업이익 및 특별계정자산 증가 등의 원인으로 전년 대비 13.1% 성장한 239조 3,619억원을 기록함.
 - 손해보험 총자산은 장기손해보험의 급성장에 따른 준비금 증가로 인하여 전년 대비 13.4% 성장한 49조 2,774억원을 기록함.
- 2006년 8월말 총자산 규모는 변액보험의 일시납 자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손보의 대형사 자산이 증가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28.3% 증가한 303조 5,589억원을 기록하여 총자산이 300조원을 돌파함.

<표 III-2> 생·손보사 총자산 추이

(단위 : 억원, %)

연도 종목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2006.4~8
생명보험	1,430,340	1,642,225	1,873,615	2,116,098	2,393,619	2,517,938
	18.5	14.8	14.1	12.9	13.1	13.8
손해보험	327,267	353,683	388,229	434,720	492,774	517,651
	16.7	8.1	9.8	12.0	13.4	14.9
합 계	1,757,607	1,995,908	2,261,844	2,261,844	2,886,393	3,035,589
	18.1	13.6	13.3	12.8	27.6	28.3

주 :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2) 특별계정이 포함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생명보험

가. 수입보험료

- FY2005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61조 4,722억원으로 전년대비 14.4% 증가하여 CY2005 경상 GDP 성장률이 3.5%인 것에 비교하여 큰 폭의 성장을 보임.
- 2006년 4월부터 8월까지의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5조 9,69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2.9%의 양호한 성장을 보였음.
 - 동 기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92.9%를 차지하는 개인보험(특별계정 포함)은 전년동기 대비 13.5% 증가했으나, 단체보험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5.9%의 낮은 성장세를 보였음.

<표 III-3>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I)

구 분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2006.4~8
국내 경제	경상GDP (10억원) ¹⁾	622,123	684,264	724,675	779,380	806,621	401,293
	증 가 율 ²⁾	7.5	10.0	5.9	7.5	3.5	5.0
생보 산업	보험료(억원)	473,643	490,668	503,925	537,506	614,722	259,698
	증 가 율 ²⁾	-8.3	3.6	2.7	6.7	14.4	12.9

주 : 1) GDP는 CY 2000 명목가격 기준을 따르며, 2003년 이후는 잠정 수치임.

2) 전년 또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3) CY2004 상반기 경상 경제성장률임.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및 www.bok.or.kr.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III-4>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II)

(단위 : 억원, %)

구 분	초회보험료		초년도보험료		2차년도 이후		합 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FY2001	개인	30,495	-73.4	109,520	18.3	237,784	24.3	377,799	-5.2
	단체	49,945	-31.6	19,078	11.5	26,821	-3.2	95,844	-18.7
	전체	163,180	- 9.7	97,705	0.9	206,669	10.9	467,554	0.8
FY2002	개인	29,688	-2.5	100,710	-8.0	285,095	19.9	415,493	10.0
	단체	24,980	-50.0	18,946	-0.9	31,248	16.5	75,175	-21.6
	전체	54,668	-32.0	119,656	-7.0	316,343	19.6	490,668	3.6
FY2003	개인	53,625	80.6	91,438	-9.2	302,098	6.0	447,161	7.6
	단체	10,758	-56.9	8,476	-55.3	37,530	20.1	56,764	-24.5
	전체	64,383	17.8	99,913	-16.5	339,629	7.4	503,925	2.7
FY2004	개인	55,101	2.8	103,031	12.7	322,008	6.6	480,140	7.4
	단체	11,752	9.2	5,293	-37.6	40,321	7.4	57,366	1.1
	전체	66,853	3.8	108,324	8.4	362,329	6.7	537,506	6.7
FY2005	개인	72,092	30.8	119,812	16.3	356,117	10.6	547,521	14.0
	단체	20,677	75.9	7,392	39.7	39,012	-3.2	67,201	17.1
	전체	92,770	38.8	126,704	16.7	395,130	9.1	614,722	14.4
2006. 4~8	개인	26,720	22.9	53,023	10.2	161,584	13.1	241,327	13.5
	단체	6,854	5.8	2,173	63.1	9,344	-2.0	18,371	5.9
	전체	33,573	19.0	55,196	11.6	170,929	12.2	259,698	12.9

주 : 증가율은 전년 또는 전년동기 대비 비율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1)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 FY2005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종목별 구성비는 사망보험이 45.3%, 생존보험 25.9%, 생사혼합보험 17.8%, 단체보험 10.9%인 것으로 나타남.
 - 생존보험의 구성비는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사망보험과 일반 단체보험의 구성비는 하락세를 보임.
 - 생존보험의 증가는 저금리 지속과 주식시장의 상승에 따른 변액보험을 포함한 변액연금증가에 기인함.
- 2006년 4~8월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종목별 구성비는 사망보험과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은 증가한 반면, 단체보험은 축소됨.
 - 동 기간 중 사망보험의 점유율은 전체의 46.3%, 생존보험은 27.4%, 생사혼합보험은 19.2%, 단체보험은 7.1%를 나타냄.
 - 전년 동기 대비 개인보험 생존보험의 비중 증가는 변액연금보험의 증가와 단체보험의 비중감소에 기인함

<표 III-5>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구성비 추이

(단위 : %)

구분	생존	사망	생사 혼합	개인계	퇴직 보험	퇴직 연금	일반 단체	단체계
FY2003	23.9	46.0	18.8	88.7	7.7	-	3.6	11.3
FY2004	24.4	48.9	16.0	89.3	7.5	-	3.1	10.7
FY2005	25.9	45.3	17.8	89.1	8.6	-	2.3	10.9
2006.4~8	27.4	46.3	19.2	92.9	4.8	0.3	2.0	7.1

<표 III-6>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2006.4~8	
개 인 보 험	생존보험	74,955	91,424	120,375	131,368	159,305	71,210	
		-31.0	22.0	31.7	9.1	21.3	26.0	
	사망보험	174,334	213,677	231,844	262,971	278,492	120,318	
		39.0	22.6	8.5	13.4	5.9	5.5	
	생사혼합	128,510	110,392	94,942	85,801	109,725	49,800	
		-22.0	-14.1	-14.0	-9.6	27.9	18.1	
	소 계	377,799	415,493	447,161	480,140	547,521	241,327	
		-5.2	10.0	7.6	7.4	14.0	13.5	
	단 체 보 험	일반단체	38,112	27,393	18,013	16,891	14,108	5,217
			-43.9	-28.1	-34.2	-6.2	-16.5	-12.2
퇴직보험		57,733	47,781	38,751	40,474	53,093	12,486	
		15.9	-17.2	-18.9	4.4	31.2	9.5	
퇴직연금		-	-	-	-	-	668	
		-	-	-	-	-	-	
단체보험계		95,844	75,175	56,764	57,366	67,201	18,371	
		-18.7	-21.6	-24.5	1.1	17.1	5.9	
합계	473,643	490,668	503,925	537,506	614,722	259,698		
	-8.3	3.6	2.7	6.7	14.4	12.9		

주 : 하단의 수치는 전년 또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 FY2005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14.0% 증가한 54조 7,521억 원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단체보험의 경우 전년대비 17.1% 증가한 6조 7,201억원을 기록함.
- 사망보험은 전년 대비 5.9% 증가한 27조 8,492억원의 수입보험료를 거두어 성장세가 위축됨.
- 생존보험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21.3% 증가한 15조 9,305억원을 기록 하면서 FY2004 9.1%에서 12.2%p나 증가함.

- 생사혼합보험의 경우 일반생사혼합보험의 경쟁력 상실에 따른 지속적인 감소세가 FY2004까지 지속되었으나, 변액보험시장의 확대에 따라 FY2005 전년 대비 27.9% 증가한 10조 9,725억원의 수입보험료를 기록하면서 큰 폭의 증가세로 반등함.
 - 단체보험의 경우에는 퇴직보험의 수요 증가와 일반단체보험 감소세 완화로 전년 대비 17.1% 증가한 6조 7,201억원을 기록하면서 FY2004년 이후 성장세를 지속함.
- 2006년 4~8월 중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13.5% 증가한 24조 1,327억원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5.9% 성장한 1조 8,371억원을 기록함.
- 변액종신보험의 성장부진으로 사망보험의 성장세는 감소해 5.5%의 성장을 보인 반면 생존보험은 변액연금의 성장으로 26.0%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함.
 - 생사혼합보험의 경우에는 변액유니버설보험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증가에 따른 18.1%의 성장을 보여 성장세가 축소됨.
 - 단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퇴직보험의 상대적 감소와 일반단체보험의 감소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5.9%의 성장을 기록함.

2)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FY2005 수입보험료 기준 회사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상위사의 비중 감소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진 반면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은 계속 상승세를 유지함.
-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FY2004보다 2.6%p 감소한 65.9%를 기록함.

- 외국사의 변액보험위주의 판매와 다양한 채널확보를 통한 시장확대와 국내 중소형사의 선전으로 외국사와 국내 중소형사와 외국사의 점유율은 FY2004보다 각각 1.8%p, 0.8%p 증가한 18.3%, 15.8%로 나타남.
- 2005 4~8월 중 시장점유율은 상위사의 감소세가 지속된 반면 외국사는 20%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남.
 - 상위 3사의 점유율은 내실위주의 경영이 지속되면서 연초보다도 2.8%p나 축소된 63.1%를 기록함.
 - 반면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은 우량 외국사들의 선전으로 점유율 증가가 지속됨.

<표 III-7> 생명보험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

연 도	상위 3사	국내 중소형사	외국사
FY2001	78.0	14.0	8.0
FY2002	75.8	13.7	10.5
FY2003	72.0	14.4	13.6
FY2004	68.5	15.0	16.5
FY2005	65.9	15.8	18.3
2006. 4~8	63.1	16.5	20.4

주 : 외국사는 지분인수 기준일로 구분하였음. 2006년 8월말 기준 현재 알리안츠, 푸르덴셜, ING, 라이나, AIG, 메트라이프, 하나, 뉴욕, PCA, SH&C가 포함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나. 계약현황

1) 신계약

- FY2005 신계약액은 사망보험과 생사혼합을 제외한 전 종목의 신계약금액 증가로 인하여 17.7%가 증가한 366조 2,808억원을 기록함.
 - 일반계정 생존보험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변액연금보험의 수요 증가가 이어지면서 생존보험의 신계약액은 전년 대비 49.4% 증가한 38조 7,177억원을 보임.
 - 사망보험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전년 대비 8.8% 감소한 228조 9,677억원을 기록함에 따라 그 감소 추세가 확대됨.
 - 생사혼합보험의 신계약액은 변액유니버설보험의 수요가 다소 진정되면서 전년 대비 36.1% 증가한 30조 9,782억원을 기록함.
 - 단체보험의 신계약액은 퇴직보험의 수요 반등으로 전년대비 139.7% 증가한 67조 6,231억원의 높은 성장을 기록함.

- 2006년 8월말까지의 생명보험 신계약액을 보면 생존보험의 큰 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단체보험의 큰 감소로 생명보험 전체 신계약액은 전년동기 대비 5.8% 증가율에 그침.
 - 장기저축성상품인 연금상품이 금리상승의 영향으로 증가하고 개인연금보험도 증가함에 따라 생존보험의 신계약액은 전년동기 대비 55.2% 상승함.
 - 주식시장의 불안에 따른 영향으로 변액유니버설보험의 수요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퇴직보험의 수요도 감소됨에 따라 생사혼합보험 신계약증가율이 전년동기 대비 19.0%로 둔화되었으며 단체보험 신계약액은 -32.1%로 감소세를 보임.

- 사망보험 신계약액은 종신보험의 재성장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함.

<표 III-8> 생명보험 신계약액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	단체보험	합 계
FY2001	255,110	2,901,231	224,250	208,931	3,589,522
	-33.4	60.0	-59.9	-22.4	18.7
FY2002	318,493	2,597,024	167,007	190,352	3,272,876
	24.8	-10.5	-25.5	-8.9	-8.8
FY2003	233,475	2,537,848	157,970	176,368	3,105,661
	-26.7	-2.3	-5.4	-7.3	-5.1
FY2004	259,179	2,510,532	227,691	282,139	3,279,541
	11.0	-1.1	44.1	60.0	5.6
FY2005	387,117	2,289,677	309,782	676,231	3,662,808
	49.4	-8.8	36.1	139.7	11.7
2006.4~8	170,821	940,315	104,506	141,607	1,357,250
	55.2	12.7	19.0	-32.1	5.8

주 : 하단의 수치는 전년 또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2) 보유계약

- FY2005 생명보험 보유계약액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전년 대비 9.9% 증가한 1,437조 5,087억원을 기록하였으며, 2006년 8월말에는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한 1,472조 2,714억원을 기록함.
- 2006년 8월말 현재 보유계약액 기준 생존보험과 사망보험의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0.6%p 증가한 12.2%와 0.3%p 감소한 76.3%를 기록함.
- 생사혼합보험의 보유계약액 비중은 생사혼합보험 신계약액의 큰 폭 증가에도(107.0%) 불구하고 지속적 축소로 전년 동기 대비 0.1%p 소폭 증가한 5.8%에 그침.

- 단체보험의 보유계약액 비중은 단체보험 신계약의 큰 폭 증가에 (162.1%)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1.1%p 증가한 5.7%를 차지함.

<표 III-9> 생명보험 보유계약액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	단체보험	합 계	
FY2001	금 액	1,538,750	7,067,857	970,612	579,688	10,156,906
	증가율	0.2	37.9	-6.2	-2.1	22.5
	비 중	15.1	69.6	9.6	5.7	100.0
FY2002	금 액	1,590,804	8,305,323	862,663	578,618	11,337,408
	증가율	3.4	17.5	-11.1	-0.2	11.6
	비 중	14.0	73.3	7.6	5.1	100.0
FY2003	금 액	1,513,500	9,211,881	738,275	548,680	12,012,337
	증가율	-4.9	10.9	-14.4	-5.2	6.0
	비 중	12.6	76.7	6.1	4.6	100.0
FY2004	금 액	1,545,966	10,126,018	738,074	674,298	13,084,355
	증가율	2.1	9.9	-0.03	22.9	8.9
	비 중	11.8	77.4	5.6	5.2	100.0
FY2005	금 액	1,732,266	10,959,999	817,564	865,258	14,375,087
	증가율	12.1	8.2	10.7	28.3	9.9
	비 중	12.1	76.2	5.7	6.0	100.0
2006. 4~8	금 액	1,802,414	11,238,706	838,352	843,242	14,722,714
	증가율	14.6	8.7	7.5	10.6	9.4
	비 중	12.2	76.3	5.8	5.7	100.0

주 : 증가율은 전년 또는 전년동기 대비 비율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다. 수지현황

1) 지급보험금

- FY2005 보험금은 전년 대비 24.3% 증가한 10조 1,452억원을 기록함.

- 사망보험과 일반단체보험의 보험금은 전년 대비 각각 3.6%, 1.1% 증가한 1조 2,712억원과 5,233억원을 기록함.
- 2006년 4~8월 중 보험금은 전체적인 감소세를 보이면서 전년 동기 대비 30.3%가 감소한 2조 8,050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됨.
 - 동 기간 중 개인보험종목의 보험금은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이 각각 18.2%, 64.6% 감소한 반면, 사망보험이 3.0%증가하면서 개인보험 전체(일반계정) 47.6%나 감소한 1조 3,793억원을 기록함.
 - 단체보험 보험금은 일반단체보험의 보험금이 12.1%나 증가하면서 단체보험 보험금지급을 주도하면서 1조 4,217억원(퇴직보험포함)을 기록함.
- FY2005 환급금은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이 각각 5.9%, 39.3% 증가하여 전년 대비 8.7%의 증가를 기록함.
 - 2006년 4~8월 중 환급금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이 15.6%, 33.5% 각각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7.2% 증가함.

<표 III-10> 생명보험 지급보험금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보험금		환급금		배당금		합 계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FY2001	개인	43,656	-16.8	178,787	6.8	4,854	2.6	227,297	1.2
	단체	31,646	-25.3	83,914	-32.4	671	-50.8	116,231	-30.8
	전체	75,302	-20.6	262,701	-9.9	5,525	-9.4	343,528	-12.5
FY2002	개인	43,219	-1.0	165,246	-7.6	3,732	-23.1	212,197	-6.6
	단체	26,309	-16.9	55,404	-34.0	270	-59.7	81,983	-29.5
	전체	69,528	-7.7	220,650	-16.0	4,002	-27.6	294,180	-14.4
FY2003	개인	60,170	39.2	190,849	15.5	4,535	21.5	255,554	20.4
	단체	33,257	26.4	28,270	-49.0	313	16.0	61,840	-24.6
	전체	93,427	34.4	219,119	-0.7	4,848	21.1	317,394	7.9
FY2004	개인	52,108	-13.4	210,369	10.2	4,590	1.2	267,067	4.5
	단체	29,536	-11.2	19,277	-31.8	346	10.5	49,159	-20.5
	전체	81,644	-12.6	229,646	4.8	4,936	1.8	316,226	-0.4
FY2005	개인	66,862	28.3	222,809	5.9	4,340	-5.4	294,011	10.1
	단체	34,590	17.1	29,860	39.3	354	2.3	61,804	25.7
	전체	101,452	24.3	249,669	8.7	4,694	-4.9	355,815	12.5
2006. 4~8	개인	13,810	-47.6	98,460	15.6	1,488	-10.6	113,758	0.5
	단체	14,241	2.2	10,821	33.5	124	0.0	25,186	13.6
	전체	28,050	-30.3	109,280	17.2	1,612	-10.0	138,942	2.7

주 : 증가율은 전년 또는 전년동기 대비 비율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2) 수치차

- FY2005 당기손익은 투자영업이익이 감소하고 보험영업이익도 크게 축소되었으나 기타수지가 개선되어 전년수준의 2조 972억원을 시현함.
 - 보험영업이익은 보험영업수익이 소폭 증가에 그친 반면 보험영업비용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면서 큰 폭의 감소를 나타냄.
 - 투자영업이익은 투자영업수익이 감소하고 투자영업비용도 소폭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4.7% 감소한 10조 2,400억원을 기록함.
 - 준비금전입액도 일반계정의 수입보험료가 감소하면서 줄어들었으나 법인세가 증가하면서 당기순이익은 전년수준을 나타냄.

- 2006년 8월말 현재 당기순이익은 보험영업이익과 투자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했으나 준비금전입액이 크게 늘면서 전년동기 대비 3,371억원 감소한 3,433억원을 기록
 - 동 기간 중 보험영업수지는 개인보험위주의 수입보험료가 증가한 반면 보험영업비용은 소폭 증가 그치면서 전년동기 대비 9.2% 증가한 4조 1,991억원을 기록함.
 - 동 기간 중 투자영업수지는 투자영업수익이 소폭 증가했으나 투자영업비용이 비교적 크게 감소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한 4조 3,623억원을 기록함.

<표 III-11> 생명보험 수지차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보험수지차	총수지차	당기순이익
FY2001	59,267	121,079	17,228
FY2002	120,581	195,920	28,320
FY2003	98,356	171,078	15,874
FY2004	101,395	194,232	21,051
FY2005	71,669	178,319	20,972
2006.4~8	41,991	88,122	3,433

주 : 1) 보험수지차는 특별계정을 포함함.

2) 보험수지차 = 수입보험료 - 지급보험금 - 사업비(신계약·유지·수금비)

3) 총수지차 및 당기순이익은 일반계정임.

4) 총수지차 = 보험손익 + 투자손익 + 기타손익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동향』, 각 월호.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4. 10.

라. 자산운용 현황

1) 총자산 규모

○ FY2005 생명보험회사 총자산 규모는 일시납 위주의 변액보험의 수입보험료가 증가하면서 특별계정자산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13.1% 성장한 239조 3,619억원을 기록함.

- 2006년 8월말 총자산 규모도 변액보험과 퇴직연금 등 특별계정 수입보험료가 증가가 이어지면서 전년동기 대비 12.7% 증가한 221조 2,238억원을 기록함.

<표 III-12> 생명보험 자산운용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총 자 산	운용자산*	자산운용수익*	자산운용수익률(%)	
				총 자 산	운용자산
FY2001	1,430,340	1,164,981	92,351	8.5	8.9
FY2002	1,642,225	1,326,366	105,700	8.5	8.9
FY2003	1,873,615	1,520,232	118,707	8.3	8.7
FY2004	2,116,098	1,685,303	129,822	8.0	8.4
FY2005	2,393,619	1,860,982	125,203	7.0	7.3
2006.4~8	2,517,938	1,942,793	50,555	6.2	6.5

주 : * 표시는 일반계정의 실적임.
 자료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각 월호.

- FY2005 생명보험 산업의 운용자산 수익률은 지속된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저금리 지속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1%p 감소한 7.3%를 기록함.
- 2006년 4~8월 운용자산 수익률은 금리가 상승하긴 했으나 채권수익률 하락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0.5%p 감소한 6.5%를 기록함.

2)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 FY2005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는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추구하면서 채권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부동산비중도 증가함.
- 2005년 8월말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는 유가증권이 총자산의 52.4%로 전년동기 대비 연초보다 0.1%p 증가하였으며, 이중 채권이 0.7%p 증가하고 대출채권은 19.2%로 0.6%p 감소하였음.

- 이는 보험회사가 유가증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채권투자를 확대하고
가계부채 심화 등 신용불안 확대의 영향으로 대출채권의 보유 비중을
축소했기 때문임.

<표 III-13> 생명보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추이

(단위 : 십억원, %)

구 분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2006. 8	
운용 자산	현·예금	2,684 1.9	3,256 2.0	3,180 1.7	3,012 1.4	4,231 1.8	4,614 1.8
	유가증권	63,865 44.6	76,797 46.8	94,665 50.5	111,268 52.6	125,190 52.3	131,989 52.4
	- 채권	36,356 25.4	48,906 29.8	57,538 30.7	71,984 34.0	81,628 34.1	87,645 34.8
	- 주식	8,238 5.8	5,496 3.3	8,893 9.4	9,394 4.4	12,352 5.2	12,740 5.1
	- 기타	19,271 13.5	22,396 13.6	28,234 10.4	29,890 14.1	31,210 13.0	31,604 12.6
	대출	40,690 28.5	43,544 26.5	45,125 24.1	45,306 21.4	47,392 19.8	48,282 19.2
	부동산	9,258 6.5	9,039 5.5	9,052 4.8	8,944 4.2	9,284 3.9	9,395 3.7
	소계	116,498 81.5	132,637 80.8	152,023 81.1	168,530 79.6	186,098 77.7	194,279 77.2
	비운용자산	15,782 11.0	18,458 11.2	20,574 11.0	24,426 11.5	24,805 10.4	25,622 10.2
	특별계정	10,754 7.5	13,128 8.0	14,764 7.9	18,654 8.8	28,459 11.9	31,892 12.7
총 자산	143,034 100.0	164,223 100.0	187,362 100.0	211,610 100.0	239,362 100.0	251,794 100.0	

주 : 1) 하단의 수치는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현·예금에는 신탁, 예치금 등을 포함, 기타유가증권에는 수익증권,
출자금, 해외유가증권 등이 포함됨.

자료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각 월호.

마. 경영효율

- FY2005 보험금지급률(일반계정)은 개인보험 보험금지급률이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3.9%p 증가한 63.6%를 기록함.
 - 2006년 8월말 보험금지급률(일반계정)은 개인보험의 생사혼합보험의 지급보험금이 감소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3.5%p 감소된 56.6%를 기록함.
- 실효해약률(일반계정)은 FY2005 효력상실해약액의 감소로 인하여 11.8%를 기록하여 최근 몇 년째 감소추세를 이어감.
 - 2006년 8월말도 보험회사들의 실효해약률은 전년동기 대비 0.4%p 하락한 4.9%를 기록함.
- 2006년 8월말 현재 특별계정을 제외한 총자산에서 운용자산이 차지하는 자산운용률은 전년동기 대비 0.3%p 증가한 88.3%를 기록함.
- FY2005 생명보험의 계약유지율은 13회차의 경우 실효해약률 감소로 전년 대비 0.1%p 상승한 79.3%를 기록함.
 - FY2005 보험회사의 완전판매 노력으로 보험계약 유지율이 개선됨.
- 보험설계사 신규등록 후 1년 이상 보험모집활동에 종사하는 인원의 비율인 13월차 보험설계사 정착률은 우량 설계사와 남성중심 설계사 확충 노력으로 전년 대비 2.4%p 증가한 36.1%로 나타남.

<표 III-14> 생명보험 경영효율 주요 지표

(단위 : %)

구 분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2006. 4~8	
보험금지급률	72.5	59.1	61.3	59.7	63.6	56.6	
실효계약률	14.1	14.8	16.1	14.2	11.8	4.9	
자산운용률*	88.1	87.8	88.1	87.3	88.2	88.3	
유지율	13회차	79.0	79.3	73.6	79.1	79.3	-
	25회차	59.6	65.7	62.6	58.4	65.7	-
설계사정착률(13)	28.8	31.2	31.2	33.7	36.1	-	

- 주 : 1) 보험금지급률 = 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
 2) 실효계약률 = 효력상실계약액/(연초보유계약액+신계약액)
 3) 유지율 = 유지계약액/신계약액
 4) *는 일반계정의 수치임.
- 자료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각 월호.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바. 판매채널

- FY2005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비중을 분석한 결과 일반계정의 경우 설계사와 방카슈랑스 채널이 양분되면서 설계사채널이 확대됨.
 - 방카슈랑스 채널은 여전히 큰 비중으로 차지하나 FY2004에 비해 0.31%p의 소폭 증가에 그침.
 - 보험설계사의 판매 비중도 전년대비 1.8%나 증가하였으며, 변액보험 판매까지 고려할 경우 비중확대가 두드러짐.
 - 또한 보험대리점의 경우도 대형 법인대리점이 증가하면서 그 비중이 증가함.

<표 III-15> 생명보험 모집형태별 초회 수입보험료 비중 추이

(단위 : %)

구 분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2006. 4~8
회사직급	55.7	46.0	9.9	7.4	4.7	2.5
보험설계사	41.6	45.8	40.0	37.3	39.1	41.0
대리점	2.6	7.0	7.4	8.2	9.6	8.8
중개인	-	-	0.0	-	-	-
T/M	-	-	2.6	-	-	-
C/M	-	-	0.1	-	-	-
방카슈랑스	-	-	39.7	46.7	46.6	47.7
기타	0.1	1.3	0.3	0.4	0.0	0.0

자료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각 월호.

- 2006년 8월말 현재 초회보험료를 기준으로 모집형태별 비중을 분석한 결과 보험설계사 채널의 비중 확대가 지속되고 있으며, 방카슈랑스 채널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보험설계사의 판매 비중은 남성설계사의 모집확대 및 우량설계사의 정착률제고 노력으로 생산성이 향상됨에 따라 확대되고 있음.
 - 방카슈랑스 채널도 대형사들이 방카슈랑스채널에 대한 판매를 늘리면서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 FY2005 생명보험의 모집조직 규모는 보험설계사의 수가 감소한 반면 대리점이 급증하고 회사직급도 소폭 증가함.
 - 설계사수는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속에 거의 외국사들만 설계사를 충원하였고 대형사들은 남성설계사를 늘리는 추세를 보임.
 - 대리점수는 54.2%나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부 대형사와 국내 중소형사들에 의해 주도됨.

<표 III-16> 생명보험 모집조직 추이

(단위 : 명, 개)

구 분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2006. 4~8
회사직급	28,572	26,726	26,172	25,412	26,033	26,035
	-10.3	-6.5	-2.1	-2.9	2.4	3.0
보험설계사	171,505	151,064	143,498	136,947	123,702	125,874
	-20.2	-11.9	-5.0	-4.6	-9.7	1.8
대리점	7,001	7,267	7,211	6,672	10,290	10,705
	16.4	3.8	-0.8	-7.5	54.2	58.3

주 : 하단은 전년 또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각 월호.

3. 손해보험

가. 원수보험료

- FY2005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보험의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장기손해보험의 급성장과 일반손해보험의 성장 회복에 기인하여 전년 대비 10.8%의 성장률을 나타내었음.
 - 자동차보험은 전년대비 3.1% 성장한 8조 7,890억원으로 저성장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장기손해보험은 통합형보험 등 상해, 질병 부문과 저축성 부문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16.8%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함.
 - 통합형보험 판매가 크게 확대되면서 전체 장기손해보험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상해 및 질병 부문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저축성보험도 방카슈랑스 도입에 따른 계속보험료 유입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음.
 -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전 종목에서 전년보다 성장률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 화재보험은 참조위험률 인상으로 인한 보험료 성장을 나타내었으며, 해상보험은 선박보험의 성장에 기인하여 전년도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회복됨.
 - 특종보험은 기술보험, 상해보험의 성장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12.4%의 성장률을 기록함.

- 2006년 4~8월에는 장기손해보험의 급성장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도 손해를 악화에 따른 보험요율 인상으로 성장이 회복되고 있어 전년 동기 대비 13.6%의 높은 성장률을 시현함.
 - 자동차보험은 FY2006 보험요율 인상, 최근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 회복 등에 따라 원수보험료 기준 6.9%의 성장세를 보임.
 - 장기손해보험은 20.1%의 높은 성장률을 지속하면서 전체 손해보험에서의 점유율도 45.9%에 이르고 있음.
 -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해상보험과 보증보험은 호조세를 보이는 반면, 화재보험과 특종보험 등은 전년도에 비해 낮은 성장을 나타냄.

<표 III-17>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2006. 4~8
국내	GDP(10억원) ¹⁾	622,123	684,264	724,675	779,380	806,621	401,293
	증 가 율	7.5	10.0	5.9	7.5	3.5	5.0
손보 산업	보 험 료 ²⁾	186,959	206,129	213,782	232,173	257,235	116,593
	증 가 율	10.9	10.3	3.7	8.6	10.8	13.6

주 : 1) CY 기준(2000년 기준 경상가격)이며, 2006.4~8은 2/4분기 누적수치임.

2) 특별계정과 부수사업이 포함된 실적임.

3) 전년 또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1) 종목별 원수보험료

- 종목별 원수보험료 현황을 살펴보면, 장기손해보험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자동차보험은 FY2005 이후 성장이 다소 회복되고 있으며, 일반손해보험은 해상, 보증보험에서 높은 성장을 나타냄.

- 즉, 장기손해보험은 꾸준한 성장에 힘입어 전체 손해보험에서의 점유율이 증가추세인 반면, 자동차보험의 점유율은 감소하고 있음.

· 2006년 4~8월간 장기손해보험의 비중은 45.9%, 자동차보험은 33.1%로 나타남.

○ 일반손해보험에서는 해상보험과 보증보험이 성장률, 점유율 측면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종보험 시장의 정체 및 화재보험 시장의 성장률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

<표 III-18>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5			2006. 4 ~ 8		
	보험료	증가율	구성비	보험료	증가율	구성비
화 재	3,243	10.4	1.3	1,231	-5.2	1.1
해 상	5,277	4.1	2.1	3,268	35.8	2.8
자 동 차	87,890	3.1	34.2	38,604	6.9	33.1
보 증	10,067	11.1	3.9	4,792	24.5	4.1
특 종*	23,513	12.4	9.0	10,664	7.7	9.2
장 기	112,562	16.8	43.8	53,756	20.1	45.9
개인연금	6,976	2.6	2.7	3,085	9.2	2.6
퇴직보험	7,707	37.1	3.0	1,393	-15.6	1.2
합 계	257,235	10.8	100.0	116,593	13.6	100.0

주 : 1) *는 기술, 책임, 상해, 종합, 기타 특종보험, 권원보험의 합계임.
 2) 부수사업이 제외된 실적임.
 3)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가) 자동차보험

○ FY2005 자동차보험의 원수보험료는 8조 7,890억원으로 전년 대비 3.1%의 성장률을 기록함.

- 자동차보험 시장은 2005년 2월 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 및 대물보험 가입 의무화로 인한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시장확대 및 자동차등록대수 둔화세로 인해 저성장을 기록함.

- 저렴한 가격의 온라인 자동차보험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에 따라 FY2005 10.2%의 점유율로 증가하였음.

나) 장기손해보험

- FY2005 장기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상해 및 질병, 통합형보험과 저축성보험 등의 대부분 종목이 성장함에 따라 전년대비 16.8% 성장한 11조 2,562억원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10조원 이상의 보험료 수입을 시현하였음.

- 부문별 성장률을 보면, 통합형보험이 378.1%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며, 저축성 부문이 21.2%, 상해가 15.7%, 재물이 3.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FY2004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통합형보험은 상해/질병에 대한 수요 증가와 더불어 378.1%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 반면, 재물보험의 원수보험료는 3.6% 성장하고 운전자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 0.6%로 정체된 수준을 나타냈음.

- 2006년 4~8월에도 장기손해보험의 성장세는 지속되어 전년동기대비 20.1% 성장한 5조 3,756억원을 나타냄.

- FY2005와 마찬가지로 상해 및 저축성보험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질병 및 운전자보험은 저성장세를 지속함.

- FY2005 개인연금보험의 원수보험료는 6,976억원으로 2.6%의 성장률을

나타내었고 전체 손해보험시장에서의 비중은 2.7%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냄.

- 2006년 4~8월 개인연금보험은 3,805억원으로 FY2005 이후 9.2%의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다) 보증보험

○ 보증보험의 원수보험료 규모는 FY2005 1조 67억원으로 전년대비 11.1% 성장하였으며, 2006년 4~8월의 경우에도 4,792억원으로 24.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 이는 2005년 4월 도입된 모기지 크레딧보험의 판매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높은 성장세를 시현함.
- 이 밖에도 보증보험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행보증보험은 견조한 성장을 나타내었음.

라) 일반손해보험

○ FY2005 해상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4.1% 증가한 5,277억원을 기록하였음.

- 선박보험의 경우, 선박의 대형화로 인한 보험가입금액 확대로 전년대비 17.3% 성장하면서 전체 해상보험의 플러스 성장에 기인하였음.
- 반면, 적하보험은 참조순보험요율 인하로 성장률이 -8.8%의 성장률을 나타내었고, 항공보험은 국내 물건의 해외부보증가로 인해 -4.2%의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냄.
- 2006년 4~8월의 경우, 선박보험, 적하보험은 FY2005와 유사한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항공보험은 국내 보험사들의 해외 항공기 인수에

참여하면서 원수보험료 성장이 급증하고 있음.

- 화재보험은 전년동기대비 10.4% 성장한 3,243억원의 원수보험료를 나타내었음.
 - 화재보험 수요의 종합보험 이전에도 불구하고 2005년 5월 참조위험률 인상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임.
- FY2005 특종보험의 원수보험료는 11.0% 성장한 2조 3,513억원을 나타내면서 성장세가 소폭 하락하였음.
 - 종목별로는 상해보험이 63.2%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으며,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종합보험의 경우 4.1%, 기술보험 12.1%의 성장률을 기록함.
 - 반면, 책임보험은 근재보험 등의 효율인하로 -3.9%의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냄.

2)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FY2005 손해보험 상위 4개사의 시장점유율은 71.3%로 전년대비 0.2%p 증가하였음.
 - 이는 대형 보험회사 위주로 장기손해보험의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온라인전업사의 비중의 확대 및 신규사업자 진출에 따라 중소형사의 비중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
 - 2006년 4~8월에는 전업사 및 외국사의 점유율 확대로 일반사 점유율이 감소하였고, 특히 상위 4개사의 점유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업사의 시장점유율은 FY2004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이어가다 2006

년 8월 4.2%로 재성장 하였으며, 이는 보증보험의 플러스 성장에 기인된 것으로 분석됨.

-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은 FY2004와 동일한 1.2%를 기록하였으며, 2006년 8월에는 전년동기 대비 0.1%p 증가한 1.4%를 나타냄.

<표 III-19> 손해보험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

연도	상위 4사	중소형사	일반사계	전업사	외국사
FY2001	68.2	27.3	95.5	3.9	0.6
FY2002	70.0	24.6	94.6	4.7	0.7
FY2003	70.6	24.6	94.6	4.7	0.7
FY2004	71.1	23.1	94.8	4.0	1.2
FY2005	71.3	23.5	94.8	4.0	1.2
2006. 4~8	70.8	23.4	94.4	4.2	1.4

주 : 1) 일반사계에는 교보자동차, 교원나라, 다음다이렉트 실적이 포함되었으며, 전업사는 보증사와 재보 4사, 외국사는 AIG, ACE, 페더럴, 로얄퍼스트, 아메리칸 권원보험 등 5개사임.

2) 2002년의 경우, 알리안츠손보, 미쓰이스미토모 실적은 제외되었음.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수지상황

1) 수지차

- FY2005 전체 손해보험회사는 일반 손해보험회사들의 손익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총영업이익이 1조 5,932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감소하였음.

- FY2005 일반 손해보험회사의 총영업이익은 2,348억원 감소한 7,268억원을 기록하였으며, 보증보험회사는 7,459억원을 나타내면서 전년도 이익규모를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하였음.

- 일반 손해보험회사는 FY2000 이후 보험영업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 투자영업이익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실정임.

·FY2005 일반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영업수지는 1조 561억원 적자를 나타내었으며, 투자영업 부문에서는 전년도 보다 633억원 증가한 1조 7,769억원으로 지속적인 흑자 규모를 기록함.

- 2006년 4~8월 손해보험산업의 전체 보험영업이익은 2,447억원의 적자를 시현한 반면, 투자영업이익은 7,810억원을 나타내었음.

- 일반 손해보험회사 보험영업적자는 지속되는 반면, 투자영업수지는 흑자로 1,121억원의 총영업이익을 나타냄.
- 보증보험회사는 투자영업이익뿐만 아니라 보험영업이익에서도 흑자를 지속하고 있음.

<표 III-20> 손해보험 수지차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보험영업이익			투자영업이익			총영업이익		
	국내 11개사	보증 보험사	전사	국내 11개사	보증 보험사	전사	국내 11개사	보증 보험사	전사
FY2000	-12,628	550	-12,174	7,091	345	7,826	-5,537	895	-4,347
FY2001	-5,967	-6,920	-13,044	15,396	1,099	17,128	9,429	-5,819	4,084
FY2002	-4,090	3,859	210	11,127	-2,828	8,860	7,038	1,030	9,057
FY2003	-8,233	2,484	-5,953	14,268	-66	14,951	6,036	2,417	8,998
FY2004	-7,519	3,575	-3,414	17,136	1,558	19,451	9,616	5,134	16,044
FY2005	-10,561	5,410	-4,908	17,769	2,049	20,841	7,268	7,459	15,932
2006. 4-8	-5,001	2,305	-2,477	7,041	397	7,810	1,121	2,365	3,890

주 : 1) 보험영업이익은 비상위험준비금의 증가를 반영한 수치이며, 전사 실적에는 재보 및 외국사 실적이 포함되었음.

2) 교원나라와 다음다이렉트 보험의 실적은 제외됨.

자료 : 대한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 2006. 8

2) 당기순이익

- FY2005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1조 1,873억원으로 전년대비 4.2% 증가하였으며, FY2001 이후 흑자를 지속하고 있음.
 - 이는 자동차보험 중심의 보험영업적자에도 불구하고 투자영업이익 규모의 확대에 기인하는 것임.
- FY2005 손해보험회사의 발생손해액은 18조 5,518억원으로 전년대비 11.7%의 증가율을 나타내었으며, 원수보험료 성장률 10.8%보다 다소 높은 수준임.
 - 2006년 4~8월에는 자동차 사고율 상승으로 인한 발생손해액 증가, 장기저축성보험료 적립금 확대 등으로 손해보험회사의 발생손해액이 전년동기 대비 17.3%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음.
- FY2005 사업비는 5조 3,120억원이 지출되어 전년 대비 10.9%의 증가율을 나타내었음.

<표 III-21> 손해보험 발생손해액, 사업비,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2006. 4~8
발생손해액	131,685	134,670	155,539	166,068	185,518	82,857
	7.0	2.3	15.5	6.8	11.7	17.3
사 업 비	42,400	47,032	47,203	47,884	53,120	23,776
	12.2	10.9	0.4	1.4	10.9	17.8
당기순이익	2,183	3,249	5,635	11,394	11,873	3,754

주 : 하단의 수치는 전년 또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총자산

1) 총자산 현황

- FY2005 손해보험회사의 총자산 규모는 49조 2,774억원으로 전년대비 13.4% 증가하였으며, 2006년 8월 현재 51조 7,651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4.9% 증가함.
- 이와 같이 10%를 상회하는 자산 증가율은 최근 장기손해보험의 판매 급증에 따른 준비금 적립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표 III-22> 손해보험 총자산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2006. 8
총자산	327,267	353,683	388,229	434,720	492,774	517,651
	16.7	8.1	9.8	12.0	13.4	14.9

주 : 하단의 수치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자산효율

- FY2005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의 자산운용률은 85.1%로 전년대비 1.0%p 감소하였으며, 2006년 8월에는 84.5%로 나타남.
- 총자산수익률은 FY2005 7.8%로 전년대비 1.5%p 증가하였고, 2006년 4~8월에는 5.0%로 전년동기대비 0.1%p 축소되었음.

- 운용자산수익률은 FY2005 7.0%로 전년대비 0.4%p 감소하였으며, 2006년 4~8월에는 6.1%를 나타내었음.
- 손해보험 운용자산에서 가장 많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 채권수익률의 움직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단기매매증권 수익률은 전년대비 4.0%p 증가한 12.9%를 나타내었고, 매도가능증권 수익률은 1.6%p 증가한 9.1%를 나타냄.

<표 III-23> 손해보험 자산운용 및 자산운용수익률 추이

(단위 : %)

구 분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2006. 4~8	
자 산 운 용 율 ¹⁾	84.5	85.3	86.4	86.1	85.1	84.5	
수익률	총자산	7.8	6.4	6.4	6.3	7.8	5.0
	운용자산	9.5	7.8	7.6	7.4	7.0	6.1

주 : 1) 자산운용율은 퇴직보험이 제외된 일반계정 실적임.

2) 2002년의 경우, 알리안츠손보, 미쓰이스미토모 실적은 제외되었음.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각 연호.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 FY2005 손해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유가증권이 53.7%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년대비 0.3%p 확대됨.
- 최근 장기손해보험 판매 확대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자산운용을 중시함에 따라 채권 투자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FY2005 채권 투자비중이 37.0%로 전년대비 2.7%p 증가하였음.
- 이 밖에 FY2005 주식의 비중은 2004년 하반기 이후 주식시장 호조에 따라 전년대비 1.3%p 확대된 8.0%를 나타내고 있음.
- 2006년 8월말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의 운용자산은 총자산 대비 81.5%를 차지하고 있어 전년동기대비 4.5%p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III-24> 손해보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2006. 8
현·예금 등	21,483	20,300	18,434	18,437	18,801	21,680
	6.6	5.7	4.7	4.2	3.8	4.2
유 가 증 권	171,917	182,821	205,462	231,938	264,695	277,919
	52.5	51.7	52.9	53.4	53.7	53.7
- 주 식	28,241	17,900	29,044	28,866	39,206	40,375
	8.6	5.3	7.5	6.7	8.0	7.8
- 채 권	97,620	122,732	124,573	149,141	182,172	190,810
	29.8	35.3	32.1	34.3	37.0	36.9
- 수익증권	29,217	17,295	21,124	22,145	16,736	15,205
	8.9	4.9	5.4	5.1	3.4	2.9
- 기 타	16,839	24,894	30,721	31,786	26,581	31,529
	5.1	6.2	7.9	7.3	5.4	6.1
대출채권	45,907	58,569	67,888	76,673	84,883	86,807
	14.0	16.6	17.5	17.6	17.2	16.8
부 동 산	31,019	31,232	32,489	33,760	35,346	35,651
	9.5	8.8	8.4	7.8	7.2	6.9
운 용 자 산	270,326	292,921	324,273	360,809	403,725	422,057
	82.6	82.8	83.5	83.0	81.9	81.5
비운용자산	49,426	50,531	51,176	58,276	70,948	77,391
	15.1	14.3	13.2	13.4	14.4	15.0
특 별 계 정	7,515	10,231	12,780	15,635	18,101	18,203
	2.3	2.9	3.3	3.6	3.7	3.5
총 자 산	327,267	353,683	388,229	434,720	492,774	517,65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FY2002년의 경우, 알리안츠손보, 미쓰이스미토모 실적은 제외되었음.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라. 경영효율

○ FY2005 손해보험회사들의 합산비율은 자동차보험 중심의 손해율 악화로 인하여101.1%, 2006년 4~8월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3.5%p 증가한 101.8%로 나타났음.

- 특히, 2006년 4~8월에는 사업비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악화로 인해 합산비율이 전년동기대비 3.5%p 상승하였음.

<표 III-25> 손해보험 합산비율 추이

(단위 : %)

구 분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2006. 4~8
경과손해율	80.9	72.9	77.6	77.7	77.9	79.1
사업비율	26.0	25.5	24.3	23.1	23.2	22.7
합산비율	106.8	98.4	101.9	100.8	101.1	101.8

주 : 1) 퇴직보험 부분은 제외된 실적임.

2) 2002년의 경우, 알리안츠손보, 미쓰이스미토모 실적은 제외되었음.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손해보험 종목별 손해율을 살펴보면, FY2005에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악화되었으나, 대부분 종목은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장기손해보험은 저축성보험 판매 확대에 따라 전년대비 1.5%p 감소한 86.4%를 보임.

-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교통법규위반자 사면에 따른 사고발생률 증가, 의료수가 인상 등에 기인하여 손해율은 전년 대비 3.9%p 증가한 76.6%를 기록함.

- 보증보험의 경우, 보험료 수입증가와 구상채권 회수가 증가하면서 매우 낮은 손해율을 보이고 있음.

<표 III-26> 손해보험 손해율 추이

(단위 : %)

구분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2006. 4~8
전체 손해보험	80.9	72.9	77.6	77.7	77.9	78.6
보증보험제외	76.3	74.3	79.2	79.7	80.5	81.0
보증보험	208.3	42.0	44.1	25.3	2.9	7.4

주 : 1) 퇴직보험 부분은 제외된 일반계정 실적임.

2) 2002년의 경우, 알리안츠손보, 미쓰이스미토모 실적은 제외되었음.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III-27> 손해보험 종목별 손해율 추이

(단위 : %)

구분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2006. 4~8
화재보험	51.1	54.3	61.7	56.4	40.9	45.5
해상보험	46.0	51.6	57.7	49.5	52.0	51.6
자동차보험	67.6	68.4	76.7	72.7	76.6	78.7
보증보험	208.3	42.0	44.1	25.3	2.9	7.4
특종보험	53.8	47.5	57.8	52.0	51.6	52.8
해외원보험	57.8	50.4	47.5	41.0	52.4	30.2
장기보험	84.2	81.5	82.4	87.9	86.4	85.6
개인연금	117.8	118.7	121.8	123.8	125.9	119.9
전체	80.9	72.9	77.6	77.7	77.9	78.6

주 : 1) 퇴직보험 부분은 제외된 일반계정 실적임.

2) FY2002년의 경우, 알리안츠손보, 미쓰이스미토모 실적은 제외되었음.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 손해보험의 손해율 추이는 FY2002부터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FY2005에

는 77.9%를 기록하였으며, 2006년 4~8월에는 전년동기대비 2.4%p 증가한 78.6%로 악화세가 지속되고 있음.

- 최근 손해보험 사업의 손해율 악화는 주로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상승에 기인하고 있으며, 화재보험과 특종보험의 손해율도 다소 악화되었음.

마. 판매채널

- FY2005 손해보험 채널별 원수보험료 현황을 살펴보면, 방카슈랑스와 회사직급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기존 대리점 및 설계사 등 전통채널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즉, 방카슈랑스는 장기저축성보험 판매가 허용되면서 FY2004 2.0%에서 3.4%로 점유율이 확대되었으며, T/M 및 C/M등 온라인 채널이 포함되어 있는 회사직급 채널의 점유율은 8.2%에서 12.2%로 증가함.
- 반면, 보험설계사 비중은 35.9%로 전년대비 0.2%p 소폭 상승한 반면, 대리점은 47.0%로 2.7%p 크게 감소하였음.

- 이러한 추세는 FY2005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어 손해보험에서도 새로운 판매채널이 점유하는 비중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방카슈랑스 채널의 경우 2006년 4~8월간 점유율이 4.4%로 확대되었으며, 온라인채널을 포함하고 있는 회사직급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보험설계사의 비중은 34.8%로 감소하였고, 대리점의 경우 전년평균 대비 2.1%p 감소한 44.9%를 보임.

<표 III-28> 손해보험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2006. 4~8
회사직급	16,723	22,179	19,323	18,559	30,336	17,291
	9.1	11.0	9.3	8.2	12.2	14.8
보험설계사	72,880	74,411	74,465	80,439	89,616	40,631
	39.6	36.9	35.7	35.5	35.9	34.8
대 리 점	92,035	102,932	105,607	112,552	117,211	52,454
	50.0	51.1	50.6	49.7	47.0	44.9
중개인	-	-	1,791	2,123	2,677	963
	-	-	0.8	0.9	1.1	0.8
T/M	-	-	3,901	5,445	-	-
	-	-	1.9	2.4	-	-
C/M	-	-	1,168	1,426	-	-
	-	-	0.6	0.6	-	-
방카슈랑스	-	-	813	4,538	8,370	5,090
	-	-	0.4	2.0	3.4	4.4
공동인수	2,384	2,019	1,727	1,468	1,318	449
	1.3	1.0	0.7	0.6	0.5	0.4

주 : 1) 각 하단수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원수보험료에서 퇴직보험 부분은 제외되었음.

3) 2002년의 경우, 알리안츠손보, 미쓰이스미토모 실적은 제외되었음.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손해보험회사 모집조직의 생산성(모집조직당 원수보험료)은 모집조직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

- 임직원의 경우 FY2003 이후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며 1인당 원수보험료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온라인 채널 실적이 포함되면서 FY2005 임직원 생산성이 증가하였음.

- 보험설계사의 경우 FY2005 장기손해보험 판매를 위한 설계사 확대로 인해 전년대비 4.9%로 하락세를 기록함.

- FY2005 대리점 생산성은 전년대비 4.9%로 이는 대리점수 축소에 기인하는 것임.

<표 III-29> 손해보험 모집조직 생산성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 분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2006. 4~8
임 직 원	77.6	106.2	91.1	84.3	117.5	67.9
	46.3	36.8	-14.1	-7.5	39.4	36.1
보험설계사	127.7	137.1	123.7	130.7	124.3	54.1
	11.9	7.3	-9.8	5.6	-4.9	-2.2
대 리 점	172.7	202.3	219.0	244.9	256.8	115.6
	27.5	17.2	8.3	11.8	4.9	10.6

주 : 1) 각 하단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퇴직보험 부분은 제외되었음.

3) 2002년의 경우, 알리안츠손보, 미쓰이스미토모 실적은 제외되었음.

4) 임직원당 원수보험료 = 임직원 원수보험료/임직원수

5) 보험설계사당 원수보험료 = 보험설계사 원수보험료/모집인수

6) 대리점당 원수보험료 = 대리점 원수보험료/대리점수

IV. 보험산업 전망

1. 주요지표 전망

가. 수입보험료

- FY2007 보험산업은 변액보험의 성장세가 약화되면서 생명보험의 성장세가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의 성장회복과 장기손해보험의 고성장 지속으로 전반적으로 8.3%의 양호한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보험환경 측면에서 2007년 실물경제는 2006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내수 부문 중심의 경기둔화세가 상반기까지 지속된 후 하반기부터 경기회복세가 예상된다.
 - 북핵, 중동정세 등 지정학적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금리, 환율, 주가 등 주요 금융지표들이 불안정한 추이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변액보험의 수요확충에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FY2007 생명보험의 보험료는 성장세를 주도해왔던 변액보험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전년보다 낮은 7.4%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수익성도 위험보험금 지급률의 증가, 비차익 축소, 준비금 적립 부담 확대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 생명보험의 수익성은 자산운용수익이 전년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거나 위험보험금 지급률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당기순이익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FY2007 손해보험의 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에서 모두 양호한 성장세가 예상되며 FY2006 대비 10.3% 성장한 31.6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손해보험 산업의 수익성은 손해율이 소폭 감소하고 자산운용수익률은 크게 악화될 요인 없이 안정적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기순이익 규모는 다소 개선될 전망

<표 IV-1> FY2007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전망

(단위 :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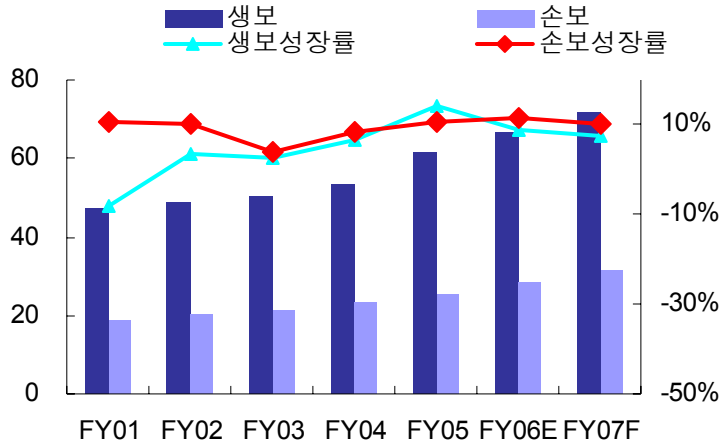
구 분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FY2006(E)	FY2007(F)
생명보험	47.4 (-8.3)	49.1 (3.6)	50.4 (2.7)	53.8 (6.7)	61.5 (14.4)	67.0 (8.9)	71.9 (7.4)
손해보험	18.7 (10.9)	20.6 (10.3)	21.4 (3.7)	23.2 (8.6)	25.7 (10.8)	25.6 (11.4)	31.6 (10.3)
전 체	66.1 (-3.6)	69.7 (5.5)	71.8 (3.0)	77.0 (7.2)	87.2 (13.3)	92.6 (9.6)	103.5 (8.3)

주 : ()안은 전년대비 억단위 증가율임.

○ FY2006 보험산업은 성장을 견인한 변액보험의 성장률이 감소하면서 생명보험 성장률이 하락하나 손해보험은 장기손해보험이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자동차보험도 성장이 회복됨에 따라 전체 보험료는 9.6%의 양호한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생명보험 산업은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던 변액보험의 성장둔화로 FY2005의 14.4%보다 크게 둔화된 8.9%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통합보험의 성장이 지속되고 저축성보험을 포함한 장기손해보험이 지속적인 높은 성장을 보이며 자동차보험의 회복으로 전년 대비 11.6%의 견조한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그림 IV-1>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규모 및 성장률 추이



나. 보험침투도

- FY2007 보험침투도²⁾는 보험산업의 양호한 성장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이 경상GDP 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어 11%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침투도는 전년도 보다 각각 0.2%p, 0.2%p 상승한 8.1%, 3.6%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FY2006 보험침투도의 경우 생명보험은 7.9%, 손해보험은 3.4%, 보험산업 전체적으로는 FY2005에 비해 0.5%p 상승한 11.3%로 추정됨.

2) 보험침투도(insurance penetration)는 보험산업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수입보험료의 백분율로 나타냄. 2006년 이후의 GDP는 잠정치 또는 전망치임.

<표 IV-2> FY2007 보험침투도 전망

(단위 : %)

구 분	FY2002	FY2003	FY2004	FY2005	FY2006(E)	FY2007(F)
생명보험	7.2	7.0	6.9	7.6	7.9	8.1
손해보험	3.0	2.9	3.0	3.2	3.4	3.6
전 체	10.2	9.9	9.9	10.8	11.3	11.7

다. 1인당 보험료

○ FY2007의 국민 1인당보험료, 즉 보험밀도(insurance density)는 214만원 정도*로 FY2006에 비해 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1인당 생명보험료는 약 7.1% 증가하고 손해보험료는 9.9%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FY2006의 1인당보험료는 198만원 정도로 FY2005보다 9.3%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통계청에서 2006년 11월 장래인구추계를 새로 발표함에 따라 『제24회 보험경영인 조찬회』 발표자료의 1인당 보험료가 상이하게 됨.

<표 IV-3> FY2007 1인당 보험료 전망

(단위 : 천원)

구 분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FY2006(E)	FY2007(F)
생명보험	1,000	1,030	1,053	1,119	1,277	1,386	1,485
손해보험	395	432	447	483	534	593	652
전 체	1,395	1,462	1,500	1,602	1,811	1,979	2,137

주 : 인구는 통계청이 5년 주기로 조사하는 장래추계인구를 최근자료(2006.11)를 사용함에 따라 『제24회 보험경영인 조찬회』의 발표자료와 1인당 보험료가 상이하게 됨.

라. 생·손보 구성비

- 전체 보험산업에서 생명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2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FY2007에는 손해보험이 생명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 증가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인 비중이 확대될 전망이다.
- FY2007 생·손보 구성비는 69.5 : 30.5 로 FY2006에 비해 손해보험의 비중이 0.5%p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IV-4> FY2007 생·손보 구성비 전망

(단위 : %)

구 분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FY2006(E)	FY2007(F)
생명보험	71.7	70.4	70.2	69.8	70.5	70.0	69.5
손해보험	28.3	29.6	29.8	30.2	29.5	30.0	30.5

마. 총자산

○ FY2007 보험산업 전체 총자산은 자산운용수익률의 소폭 증가와 준비금 적립 부담의 경감에도 불구하고 수입보험료 성장세가 소폭 둔화되어 전년 대비 11.3% 증가한 364조 9천억원으로 전망됨.

- 생명보험은 전년보다 11.0% 증가한 301조 6천억원으로 전망되며, 손해보험은 전년보다 12.8% 증가한 63조 3천억원으로 전망됨.

<표 IV-5> FY2007 보험산업 총자산 전망

(단위 : 조원, %)

구 분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FY2006(E)	FY2007(F)
생명보험	143.0 (18.5)	164.2 (14.8)	187.4 (14.1)	211.6 (12.9)	239.4 (13.1)	271.7 (13.5)	301.6 (11.0)
손해보험	32.7 (16.7)	35.4 (8.1)	38.8 (9.8)	43.4 (12.0)	49.3 (13.6)	56.1 (13.8)	63.3 (12.8)
전 체	175.7 (18.1)	199.6 (13.6)	226.2 (13.3)	255.0 (12.7)	288.7 (13.2)	327.8 (13.5)	364.9 (11.3)

주 : ()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2. 생명보험

가. 수입보험료 전망

- FY2007 생명보험시장은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그동안 성장을 주도했던 변액보험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성장률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1) 수입보험료

- FY2007의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규모는 변액보험의 성장률이 감소하고 단체보험도 상대적으로 시장이 축소됨에 따라 FY2006 대비 7.4%의 성장한 71조 9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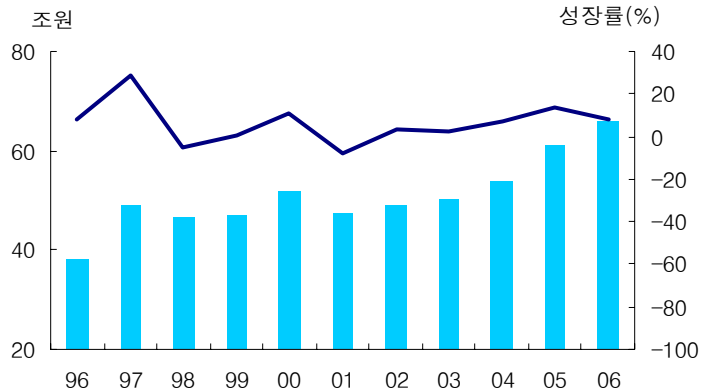
- 2007년에는 그동안 생명보험시장의 성장을 주도해온 변액보험시장의 성장률 감소가 예상됨.

- 보장성 보험의 경우 대형사를 위주로 변액보험에서 종신보험, CI보험 등으로 마케팅 전략의 주안점이 옮겨 갈 것으로 예상되어 전통보험의 약진이 예상됨.

- FY2006 개인보험 시장은 변액보험중 변액유니버설과 변액연금 시장이 양분하면서 성장을 주도해 왔으나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보험사들이 변액보험 판매를 줄이면서 성장률이 둔화됨.

- 단체보험도 퇴직보험에 대한 3월말 결산법인들의 보험료 증액과 해약률 감소로 3년 연속 성장을 지속하겠으나 성장률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IV-2>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 FY2007 생명보험 산업의 수익성은 변액보험의 성장률 감소에 따라 사업비 집행이 감소되고 IBNR에 대한 적립이 완료되었으나 그동안 지속되어 온 사업비에 대한 인하유도 효과가 현실화되고 위험보험금지급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FY2006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자산운용 환경면에서는 FY2007 중 시중금리가 소폭 상승함에 따라 채권투자에 집중되어 있는 자산수익률 또한 개선될 전망이나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로 불안요인이 상존함에 따라 FY2006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음.

<표 IV-6>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구 분	개인보험		단체보험		생명보험전체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FY1999	316,002	-4.3	151,473	13.4	467,554	0.8
FY2000	398,721	26.1	117,817	-22.2	516,538	10.5
FY2001	377,799	-5.2	95,844	-18.7	473,643	-8.3
FY2002	415,493	10.0	75,175	-21.6	490,668	3.6
FY2003	447,161	7.6	56,764	-24.5	503,925	2.7
FY2004	480,140	7.4	57,366	1.1	537,506	6.7
FY2005	547,521	14.0	67,201	17.1	614,722	14.4
FY2006(E)	593,308	8.4	76,298	13.5	669,606	8.9
FY2007(F)	639,653	7.8	79,748	4.5	719,401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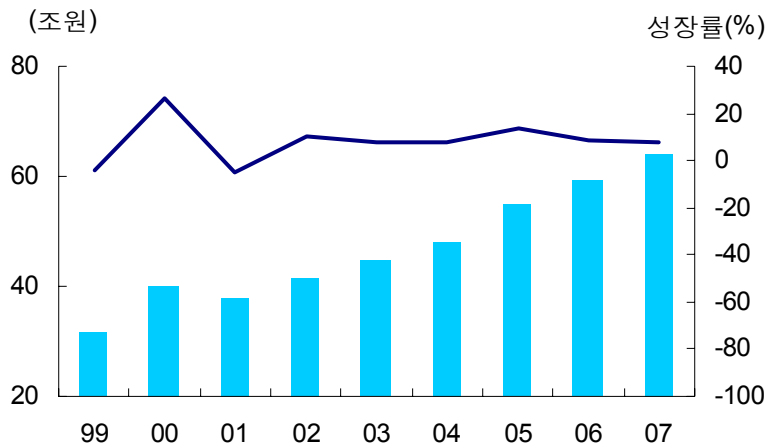
가) 개인보험

- FY2007 개인보험의 수입보험료는 변액보험성장세 감소로 인해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의 전체 수입보험료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FY2003 수준인 7.8% 증가한 64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FY2006에는 4월 주가상승랠리가 멈추고 시중자금의 간접투자시장으로의 급격한 유입도 진정됨에 따라 변액보험도 영향을 받으면서 개인보험은 전년대비 8.4% 증가한 59조 3천억원 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추정됨.
- 반면 사망보험의 경우 2004년 두 자리 수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성장을 이끌었던 종신보험이 2005년에는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어 하반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으나 FY2006 1분기는 0.4%의 소폭 성장세로 돌아섰음.
- 질병보험 또한 FY2005 성장률이 감소되었으나 FY2006에는 감소세를

멈춤.

- 사망보험(변액 종신보험 포함)이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개인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FY1997 20.1% 수준에서 FY2004에는 54.8%까지 증가했던 것이 FY2005에는 50.1%로 비중이 축소되었음.
- 지난 10월 1일부터 환급형 제3보험의 금융기관대리점판매가 허용되긴 하였으나 생보산업의 반응은 아직 유보적임.
- 또한 판매신장이 기대되었던 개인실손형 건강보험도 건강보험의 수익 모델의 불확정과 제도여건이 미비로 보장성 보험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그림 IV-3> 개인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표 IV-7> 개인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구 분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		개인보험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FY1999	97,808	-4.2	100,461	26.8	117,813	-20.9	316,082	-4.3
FY2000	108,661	11.1	125,393	24.8	164,667	39.8	398,721	26.1
FY2001	74,955	-31.0	174,334	39.0	128,510	-22.0	377,799	-5.2
FY2002	91,424	22.0	213,677	22.6	110,392	-14.1	415,493	10.0
FY2003	120,375	31.7	231,844	8.5	94,942	-14.0	447,161	7.6
FY2004	131,368	9.1	262,971	13.4	85,801	-9.6	480,140	7.4
FY2005	159,305	21.3	278,492	5.9	109,725	27.9	547,521	14.0
FY2006(E)	183,919	15.5	293,052	5.2	116,338	6.0	593,308	8.4
FY2007(F)	204,649	11.3	315,795	7.8	119,208	2.5	639,653	7.8

주 : FY2002부터 개인보험 종목별 변액보험이 포함됨.

1) 생존보험

- FY2007 생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일반계정의 연금보험에서 안정적 노후소득 마련을 위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겠으나 변액연금의 성장률 감소로 금년대비 11.3% 증가한 20조원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베이비붐세대의 노후소득에 대한 불안과 은퇴에 대비한 저축수요에도 불구하고 시중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따른 수익률에 대한 불안감으로 변액연금보험의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보여 생존보험의 성장둔화가 전망됨.
- FY2006의 생존보험 실적은 전통 연금보험(개인연금포함)에 대한 수요지속에도 불구하고 변액연금 보험의 성장둔화로 전년대비 15.5% 성장한 18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됨.

- FY2005 1분기 962p였던 KOSPI 지수가 4분기 1,351p를 정점으로 하락하면서 FY2006 2분기 1,317p로 떨어지는 등 주식시장의 급등세가 진정되고 하락세를 보이자 변액보험시장도 성장률 하락이 나타나고 있음.

2) 사망보험

- FY2007 사망보험의 수입보험료는 금년 대비 7.8% 성장하여 31조 6천억 원대에 이르렀으나, 개인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4%로 FY2004 이후 연속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전통적인 종신보험과 CI보험 등에 대한 마케팅전략의 집중에 따라 진정되고 건강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경우 재성장도 가능할 것임.
 - 수명연장과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는 장기적인 추세로 변액보험에 대한 마케팅역량이 전통보험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사망보험의 성장세가 회복될 전망이다.
 - 경우에 따라 실손보상형 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의 시장성 확보가 중요한 성장변수로 작용할 것임.
- FY2006 사망보험은 전통적 종신보험의 성장이 정체되고 CI보험 등 기타 보장성 보험도 성장률이 감소됨에 따라 전년 대비 5.2% 성장할 것으로 추정됨.
 - 2006년 4~8월 일반계정 종신보험의 전년동기 대비 성장률이 0.4%에 불과하나 기타 보장성보험이 성장하면서 전체 사망보험 성장률은 5.2% 성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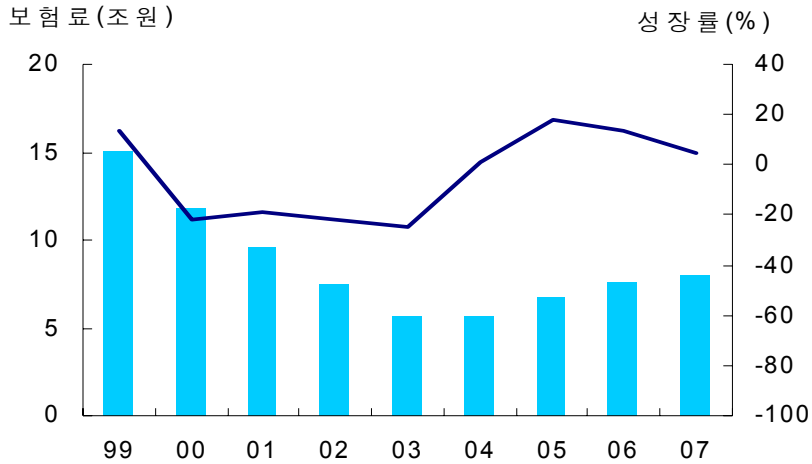
3) 생사혼합보험

- FY2007의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는 전통형 생사혼합보험의 축소가 지속되고 이를 대체해 왔던 변액유니버설도 성장률이 크게 감소됨에 따라 금년 대비 2.5% 성장한 11조 9천억원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생사혼합보험은 보험차익비과세의 장점 상실, 타 금융상품과의 금리경쟁력 약화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음.
 - 또한 실적배당형 상품인 변액유니버설보험이 급격히 성장했으나 최근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이런 추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 FY2006의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는 변액유니버설의 성장이 약화되면서 전년대비 6.0% 증가한 11조 6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됨.
 - 2003년 7월 판매되기 시작한 변액유니버설보험이 추가상승과 함께 급속하게 성장했으나 주식시장 불안정과 보험회사들의 불완전판매 우려로 성장률이 하락함.

나) 단체보험

- FY2007 단체보험시장은 퇴직연금제도의 정착이 지체되고 일반단체보험도 경기가 하락함에 따라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나 퇴직보험 수입보험료의 증가로 4.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정착이 계속 부진하고 일반단체보험도 경기둔화에 따라 축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신규판매가 중단된 퇴직보험은 해약률이 감소하고 계속보험료의 유입으로 수입보험료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IV-4> 단체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 FY2006의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13.5% 증가한 7조 6천억원 규모로 추정됨.

- FY2005 12월부터 도입된 퇴직연금상품은 2006년 8월말 수입보험료가 688억원으로 퇴직보험 수입보험료 1조 2,486억원의 5.8%수준에 불과하나 꾸준한 시장선점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 일반단체보험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연초 퇴직보험의 성장과 해약률 하락에 따른 계속보험료 증가로 성장이 예상됨.

나. 지급보험금 전망

- FY2007 생명보험 총지급보험금은 개인보험 중 사망보험의 보험금지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단체보험도 환급금이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7.8% 증가한 40조 8천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FY2006의 총지급보험금은 생사혼합보험의 지급보험금이 감소한 반면 단체보험의 보험금이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6.3% 증가한 37조 8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됨.

<표 IV-8> 생명보험 종목별 총지급보험금 전망

(단위 :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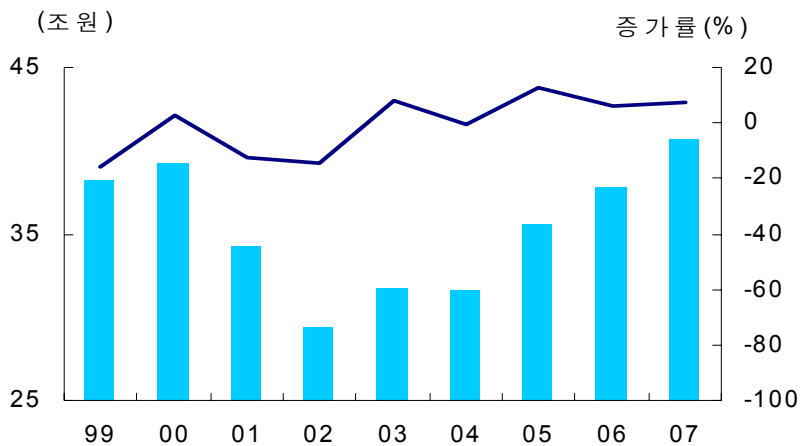
구 분	개인보험		단체보험		전체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FY1999	215,870	-18.3	167,179	-13.1	383,049	-16.1
FY2000	224,551	4.0	167,919	0.4	392,471	2.5
FY2001	226,683	0.9	116,231	-30.8	342,914	-12.6
FY2002	212,197	-6.6	81,983	-29.5	294,180	-14.4
FY2003	255,554	20.4	61,840	-24.6	317,394	7.9
FY2004	267,067	4.5	49,159	-20.5	316,226	-0.4
FY2005	294,012	10.1	61,803	25.7	355,815	12.5
FY2006(E)	303,297	3.2	74,772	21.0	378,069	6.3
FY2007(F)	320,022	5.5	87,723	17.3	407,745	7.8

- FY2007 개인보험부문의 총지급보험금 규모는 생사혼합보험 지급보험금이 감소하고 사망보험 지급보험금이 증가하면서 FY2006 대비 5.5% 증가한 32조원 규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생사혼합보험의 경우 변액유니버설의 환급금이 증가하겠으나 일반계정 생사혼합보험의 지급보험금이 감소하면서 FY2006에 이어 감소세

가 지속될 전망이다.

- 사망보험의 지급보험금은 종신보험과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생존보험의 경우 해약환급금 감소가 예상되며 FY2006 대비 지급보험금 증가는 소폭에 그칠 전망이다.

<그림 IV-5> 생명보험 총지급보험금 추이



- FY2006 개인보험 총지급보험금은 사망보험금지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사혼합보험의 지급보험금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 대비 3.2% 증가한 3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됨.

- 생사혼합보험의 경우 과거 2001년 1월 보험차익 비과세 기간이 연장되기 전 판매된 보험상품들의 만기도래 후 보험금지급이 감소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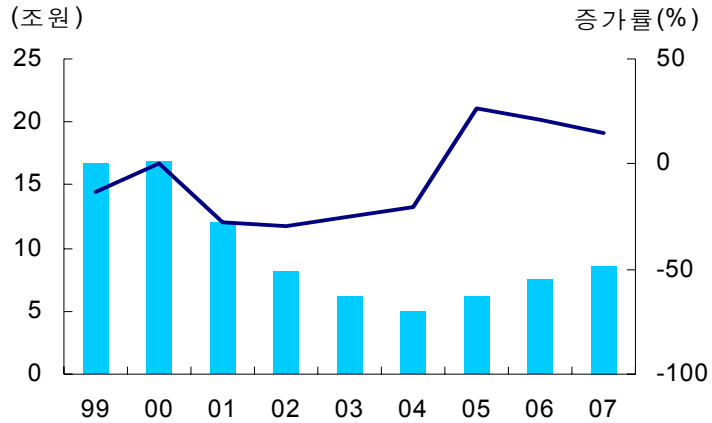
<표 IV-9> 개인보험 종목별 총지급보험금 전망

(단위 : 억원, %)

구 분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		개인보험 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FY1999	75,019	-49.0	30,025	0.5	110,826	27.2	215,870	-18.3
FY2000	71,612	-4.5	36,040	20.0	116,898	5.5	224,551	4.0
FY2001	64,238	-10.3	46,263	28.4	116,182	-0.6	226,683	0.9
FY2002	52,623	-18.9	55,419	19.8	104,155	-10.4	212,197	-6.6
FY2003	60,712	15.4	74,666	34.7	120,177	15.4	255,554	20.4
FY2004	73,135	20.5	91,553	22.6	102,379	-14.8	267,067	4.5
FY2005	83,350	14.0	99,617	8.8	111,045	8.5	294,012	10.1
FY2006(E)	93,431	12.1	109,579	10.0	100,287	-9.7	303,297	3.2
FY2007(F)	107,646	15.2	122,729	12.0	89,648	-10.6	320,022	5.5

- FY2007 단체보험 총지급보험금은 퇴직보험에 대한 수입보험료가 증가함에 따라 FY2006 대비 17.3% 증가한 8조 8천억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FY2006 단체보험 경우 퇴직연금제도 가입이 원활하지 않고 퇴직보험에 대한 3월말 결산법인들의 수입보험료가 늘면서 지급보험금도 같이 늘어남에 따라 총지급보험금은 FY2005 대비 21.0% 증가한 7조 5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됨.
 - 퇴직연금제에 대한 꾸준한 보완 대책이 마련되고 있으며 보험회사들도 퇴직연금제의 선점에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음에 따라 하반기 퇴직연금 수요 증가도 배제할 수 없음.
 - 이 경우, 퇴직보험에서 전환분이 환급금으로 계상됨에 따라 단체보험 지급보험금의 증가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음.

<그림 IV-6> 단체보험 지급보험금 추이



○ 총지급보험금은 단체보험의 지급보험금의 증가율이 감소하나 개인보험의 지급보험금 증가율이 상승하면서 FY2007의 보험금지급률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된 56.7%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FY2006의 보험금지급률은 사망보험과 생존보험의 지급보험금이 증가하나 생사혼합보험의 지급보험금이 감소하면서 개인보험의 지급보험금이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1.4%p 개선된 56.5%가 될 것으로 추정됨.

<표 IV-10>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 전망

(단위 : %)

구 분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FY2006(E)	FY2007(F)
지급률	72.5	60.0	63.0	58.8	57.9	56.5	56.7

3. 손해보험

가. 개관

- FY2007 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의 꾸준한 성장, 자동차보험의 성장 회복에 따라 전년 대비 10.3% 성장한 31조 5,933억원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반면, FY2007 일반손해보험은 보증보험, 특종보험의 둔화로 인해 3%대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FY2006에도 장기손해보험은 높은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되고, 자동차보험은 최근의 손해율 악화를 반영한 보험료 인상으로 성장이 회복될 전망이다.

1) 원수보험료 및 손해율

- FY2007 손해보험 산업은 자동차보험, 장기손해보험 모두 양호한 성장세가 예상되며, 손해율도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자동차보험은 온라인 상품 판매 비중의 확대 전망에도 불구하고, 손해율 악화에 따른 보험료 현실화와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 회복으로 6.9%의 성장률을 나타낼 전망이다.
 - 보험료 성장으로 인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도 다소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어 FY2006 78.1%에서 FY2007 76.8%로 감소할 전망이다.
 - 특히, FY2007부터 시행되는 차량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할인할증제도 개선, 보험사기 방지대책 등 자동차보험 정상화 방안 마련

등은 손해율 개선에 기여할 것임.

- 장기손해보험은 FY2007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손해율도 안정적인 것으로 전망됨.
 - 장기손해보험의 성장은 통합형보험을 비롯한 상해 및 질병부문의 성장, 방카슈랑스를 통한 저축성보험 및 환급형보험의 판매 확대에 의하여 FY2007 15.8%의 성장이 전망됨.
 - 상해/질병 부문(통합형보험 포함)의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고 보험금 지급도 증가 추세이나, 통합형보험의 낮은 손해율로 인하여 전체 장기손해보험 손해율은 FY2006 85.1%, FY2007 85.3%로 전망됨.
 - FY2007 일반손해보험은 경기 둔화 전망에 따라 수요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어 보험료 수입은 소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화재보험을 제외한 특종보험, 보증보험, 해상보험 등에서 전년도에 미치지 못하는 성장률을 나타낼 전망이다.
 - 특히, 보증보험은 FY2006 높은 성장을 주도하였던 모기지크레딧보험의 판매가 정부의 대출 규제책으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3.7%의 성장률에 그칠 것임.
- FY2006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11.4% 성장한 28조 6,454억 원으로 예상됨.
- 장기손해보험은 통합형보험의 급성장, 방카슈랑스를 통한 저축성보험 확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7.6%의 성장이 예상됨.
 - 자동차보험도 보험료 인상으로 인하여 6.8% 성장이 예상되며, 일반손해보험은 보증보험, 특종보험의 성장에 힘입어 9.7%의 성장률이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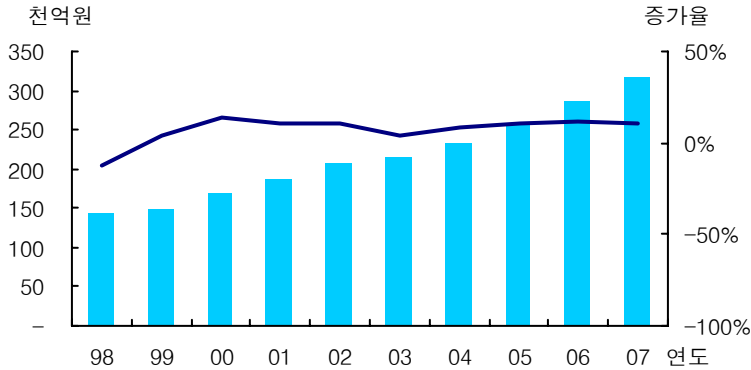
<표 IV-11>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구분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FY2006(E)	FY2007(F)
손보전체	186,959	206,129	213,783	232,189	257,235	286,454	315,843
	10.9	10.3	3.7	8.6	10.8	11.4	10.3
보증보험 제외	179,803	196,767	204,364	223,171	247,168	274,447	303,392
	10.6	9.4	3.9	9.2	10.8	11.0	10.5

주 : 1) 해외원보험과 퇴직보험, 부수사업 실적 포함임.
 2) 하단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그림 IV-7>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2) 보험종목별 점유율

○ 보험종목별 점유율에 있어서는 장기손해보험(개인연금 및 퇴직보험 포함)의 점유율이 확대되고, 자동차보험 및 일반손해보험은 다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FY2007 장기손해보험 점유율은 53.1%, 자동차보험은 31.8%, 일반손해보험은 15.1%의 점유율을 나타낼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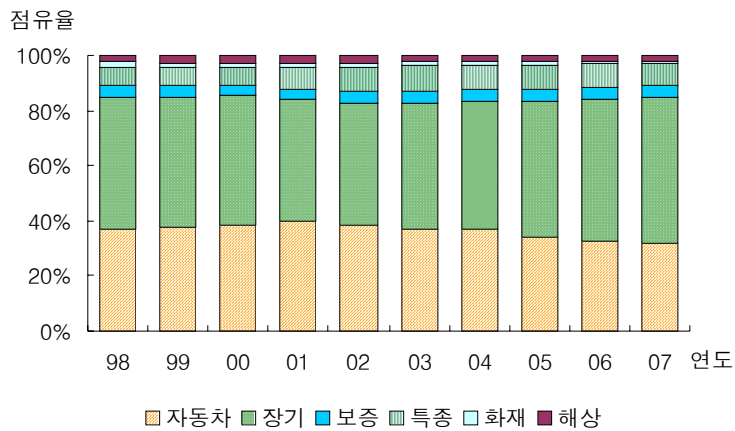
<표 IV-12> 손해보험 종목별 점유율 전망

(단위 : %)

구분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FY2006(E)	FY2007(F)
일반	16.0	17.2	16.2	16.5	16.4	16.1	15.1
자동차	39.9	38.4	37.2	36.7	34.2	32.8	31.8
장기	44.1	44.4	46.5	46.8	49.5	51.1	53.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일반에는 해외원보험, 부수사업이, 장기에는 개인연금과 퇴직보험이 포함됨.

<그림 IV-8> 손해보험 종목별 점유율 추이



나. 보험종목별 전망

1) 화재보험

- FY2007 화재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대비 6.7% 증가한 3,290억원으로 전망되며, FY2006에는 전년대비 -4.9% 증가한 3,08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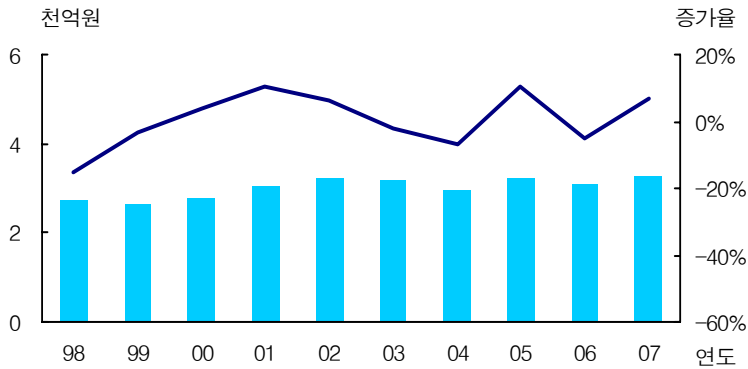
- FY2006에는 2006년 4월부터 공장, 일반, 주택물건의 보험요율 인하가 적용되고, 건설 및 투자부문의 성장 부진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FY2007 화재보험은 주택 및 일반 물건의 보험료 인상 효과가 발생하고, 제한적이기는 하나 건설투자 및 설비투자 증가가 전망됨에 따라 6.7%의 성장률이 전망됨.

<표 IV-13> 화재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구분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FY2006(E)	FY2007(F)
원수보험료	3,035	3,219	3,160	2,937	3,242	3,083	3,290
증가율	10.2	6.1	-1.8	-7.1	10.4	-4.9	6.7

<그림 IV-9> 화재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 FY2006 화재보험 손해율은 수입보험료의 마이너스 성장과 2006년 7~8월중 태풍 및 폭우 피해로 전년도에 비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FY2007 손해율은 다소 안정될 것임.

- FY2006의 경우 보험료 성장 감소와 풍수해 피해 및 겨울철 화재 발생 등 계절적 요인을 감안할 때, 손해율이 46.1%로 상승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FY2007에는 보험료 성장으로 42.3%로 손해율이 개선될 전망이다.

<표 IV-14> 화재보험 손해율 전망

(단위 : %)

구분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FY2006(E)	FY2007(F)
손해율	51.1	54.3	61.7	56.4	40.9	46.1	42.3

<그림 IV-10> 화재보험 손해율 추이



2) 해상보험

- FY2007 해상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대비 -2.1% 성장한 5,957억원에 이를 전망이며, FY2006 원수보험료는 전년보다 15.3% 성장한 6,08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FY2006 해상보험 성장은 수출증가율 둔화세, 보험요율 인하 조정으로

인한 적하보험의 마이너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선박톤수 증가 등 선박보험 급성장세로 15.3%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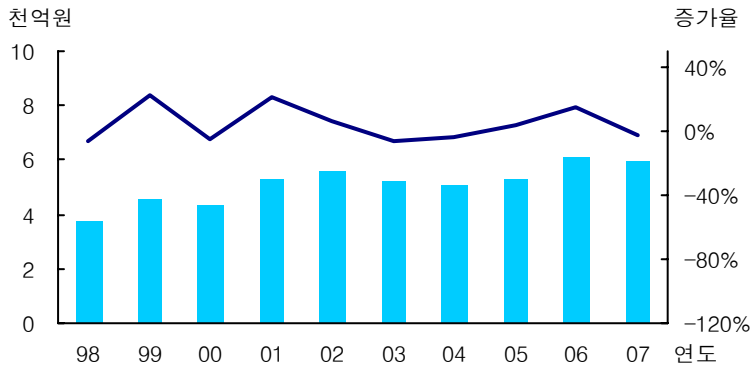
- FY2007에는 2006년 7~8월 발생한 폭우피해 및 북핵 사태로 인한 해외 재보험요율 인상 등 보험료 성장 요인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증가율 둔화세 지속 및 보험료 인하 조정이 예정되어 있어 -2.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임.

<표 IV-15> 해상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구분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FY2006(E)	FY2007(F)
원수보험료	5,292	5,605	5,242	5,071	5,277	6,084	5,957
증가율	21.8	5.9	-6.5	-3.2	4.1	15.3	-2.1

<그림 IV-11> 해상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 FY2006 손해율은 태풍 및 폭우 피해에도 불구하고 선박보험을 중심으로 한 보험료 성장으로 양호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FY2007에도 보험료 성장 지속으로 안정된 손해율을 보일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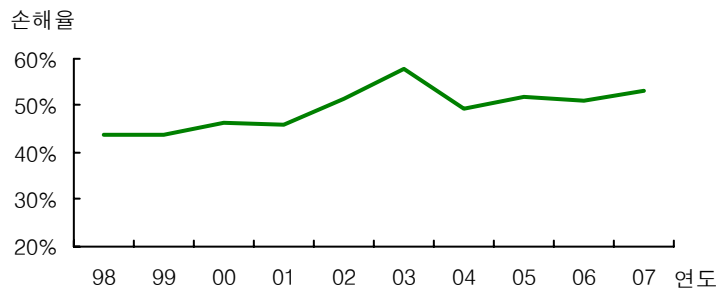
- FY2006 해상보험은 7~8월 발생한 태풍 피해에도 손해율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수보험료 성장이 15.3%로 높게 예상됨에 따라 연간 손해율 수준도 50.9%로 예상됨.
- FY2007에는 적하보험의 성장 둔화를 비롯하여 전체 원수보험료의 마이너스 성장 전망에 따라 손해율은 53.1%로 상승할 것임.

<표 IV-16> 해상보험 손해율 전망

(단위 : %)

구분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FY2006(E)	FY2007(F)
손해율	46.0	51.6	57.7	49.5	52.0	50.9	53.1

<그림 IV-12> 해상보험 손해율 추이



가) 적하보험

- FY2007 적하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대비 -3.1% 성장한 2,060억원으로 전망되며, FY2006는 -1.7% 성장한 2,126원으로 추정됨.
- FY2006 적하보험은 수출증가율이 16.1%로 둔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과 참조순보험요율 인하 효과로 인하여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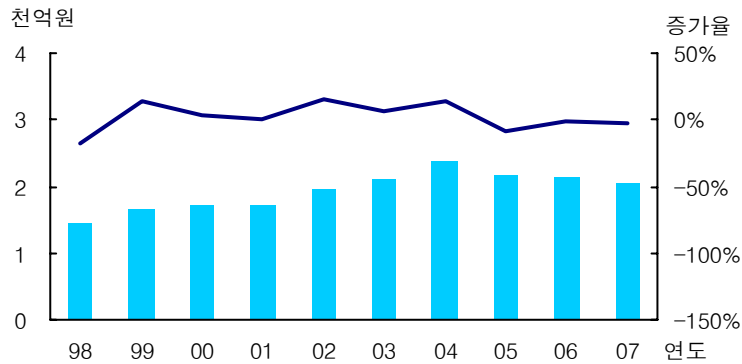
- FY2007에도 적하보험 보험료 인하요인이 발생하고 있고, 수출증가율도 전년 수준에서 큰 변화가 기대되지 않음에 따라 보험료 성장은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표 IV-17> 적하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구분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FY2006(E)	FY2007(F)
원수보험료	1,704	1,963	2,096	2,373	2,163	2,126	2,060
증가율	0.0	15.3	6.8	13.2	-8.8	-1.7	-3.1

<그림 IV-13> 적하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나) 선박보험

- 선박보험 원수보험료는 FY2006 전년 대비 11.7% 증가한 2,419억 원으로 예상되며, FY2007에는 2,533 억 원으로 4.7% 성장할 전망이다.

- FY2006에는 선박의 대형화로 인한 보험가입금액 증가, 보험 가입물건의 증가 추세에 따라 원수보험료 성장은 11.7%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FY2007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나, 보험료 인하 조정이 예상됨에 따라 성장은 4.7%에 그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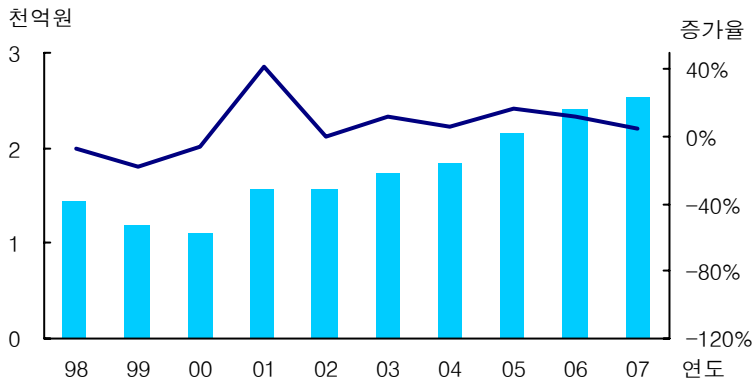
<표 IV-18> 선박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구분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FY2006(E)	FY2007(F)
원수보험료	1,572	1,566	1,744	1,848	2,166	2,419	2,533
증가율	41.4	-0.4	11.4	6.0	17.2	11.7	4.7

주 : 세부종목의 분류통계가 없는 FY2000 자료는 보험개발원의 요율검증자료를 이용하여 세부종목별로 분리하였음.

<그림 IV-14> 선박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다) 항공보험

- FY2007 항공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52.1% 증가한 1,045억원에 이를 전망이며, FY2006은 73.7% 성장한 1,023억원의 보험료 규모가 예상됨.

- FY2006 항공보험은 국내 손보사의 해외 항공기 인수 참여, 인공위성

등 항공우주보험의 신규가입건수 증가 등으로 높은 성장률을 나타낼 것이며, FY2007에는 FY2006과 유사한 보험료 수준을 보일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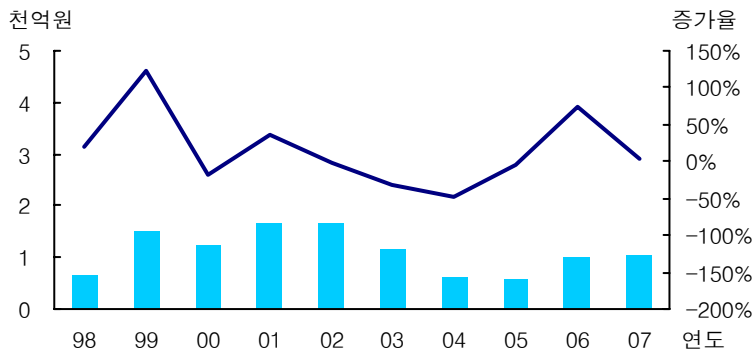
<표 IV-19> 항공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구분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FY2006(E)	FY2007(F)
원수보험료	1,677	1,666	1,155	615	589	1,023	1,045
증가율	37.1	-0.7	-30.7	-46.8	-4.2	73.7	2.1

주 : 세부종목의 분류통계가 없는 FY2000 자료는 보험개발원의 요율검증자료를 이용하여 세부종목별로 분리하였음.

<그림 IV-15> 항공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3) 자동차보험

○ FY2007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10조 326억원으로 전년대비 6.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FY2006에는 6.8% 성장한 9조 3,826억원으로 추정됨.

- FY2006 자동차보험은 저렴한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시장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손해율 악화로 인한 보험요율 인상, 자동

차등록대수 증가율 회복으로 인하여 6%대의 성장이 예상된다.

- 자동차보험에서 온라인상품의 판매 비중은 신규 시장 진출회사의 증가 등으로 인해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온라인채널은 자동차보험의 주요 채널로 부각될 것임.
- FY2007 자동차보험은 6.9%의 성장률을 보이며 FY2006과 유사한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FY2007에도 보험료 인상과 더불어 등록대수 증가율 회복세 지속, 차량의 고급화로 인한 대당보험료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양호한 성장을 보일 전망이다.
- 또한, 차량모델별 요율 차등화, 할인할증제도 개선 및 보험사기방지 대책 마련 등도 보험료 수입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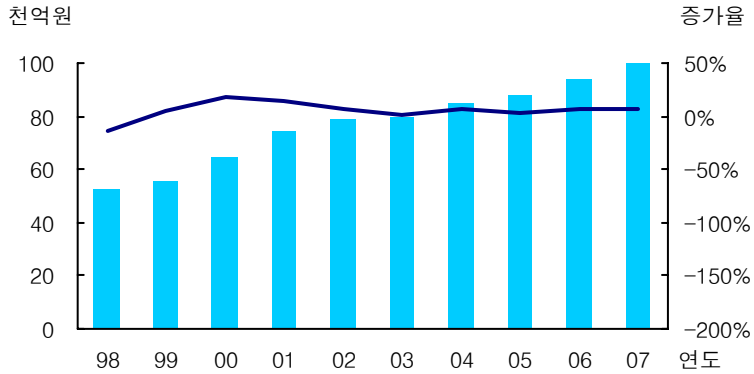
<표 IV-20>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구분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FY2006(E)	FY2007(F)
책임 보험	보험료	27,508	28,230	27,544	30,210	31,253	33,496	35,836
	증가율	16.8	2.6	-2.4	9.7	3.5	7.2	7.0
임의 보험	보험료	47,093	50,908	52,062	54,998	56,636	60,330	64,489
	증가율	13.7	8.1	2.2	5.6	3.3	6.5	6.9
합계	보험료	74,601	79,138	79,606	85,208	87,890	93,826	100,326
	증가율	14.8	6.1	0.6	7.0	3.1	6.8	6.9

주 : 세부종목의 분류통계가 없는 FY2001 자료는 보험개발원의 요율검증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을 분리하였음.

<그림 IV-16>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 FY2006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원수보험료 성장에도 불구하고 78.1%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며, FY2007은 76.8%로 다소 안정된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다.

- FY2006 손해율은 사고발생률 증가, 여름철 태풍 및 폭우 피해 등으로 인해 전년도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손해보험 산업의 수익성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자동차보험 사고발생률³⁾은 FY2004 5.2%에서 2006년 8월말 기준 5.8%로 증가하였음.

- FY2007에는 원수보험료의 양호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차량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할인할증제도 개선, 보험사기 방지대책 마련 등 정부의 자동차보험 정상화 노력으로 손해율이 개선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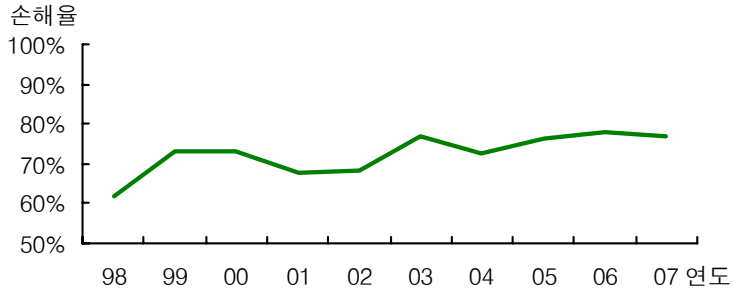
3) 대인배상책임보험 I 사고발생률임.

<표 IV-21> 자동차보험 손해율 전망

(단위 : %)

구분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FY2006(E)	FY2007(F)
손해율	67.6	68.4	76.7	72.7	76.6	78.1	76.8

<그림 IV-17> 자동차보험 손해율 추이



4) 보증보험

- FY2007 보증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3.9% 성장한 1조 2,451억원으로 전망되며, FY2006에는 19.3% 증가한 1조 2,007억원으로 추정됨.
 - FY2006 보증보험은 이행보증보험의 꾸준한 성장과 모기지크레딧보험(MCI) 등 대출관련 보증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19.3%의 높은 성장률이 예상됨.
 - FY2007에는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모기지크레딧보험의 급성장세는 다소 진정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3.9%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 또한, 건설투자 부문도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망은 이행보증을 비롯한 보증보험 수요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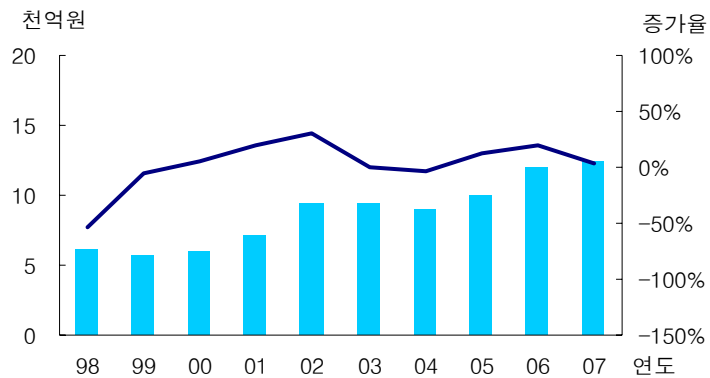
이며, 이행보증, 공탁보증 등 종목에 대해 보험료 인하가 적용됨에 따라 3.9%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표 IV-22> 보증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구분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FY2006(E)	FY2007(F)
원수보험료	7,156	9,362	9,419	9,018	10,067	12,007	12,451
증가율	18.9	30.8	0.6	-4.3	11.6	19.3	3.7

<그림 IV-18> 보증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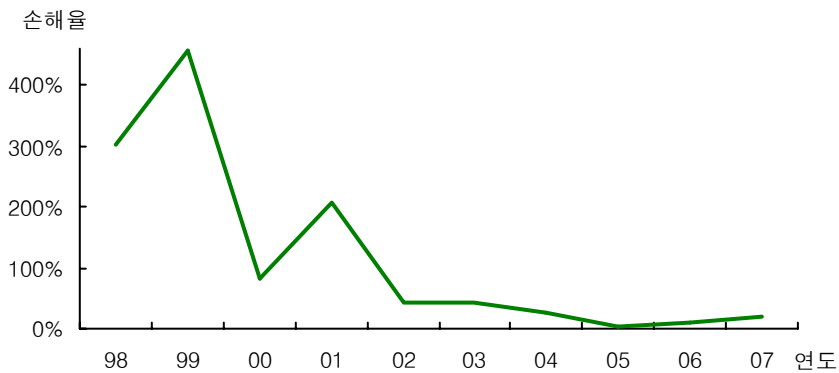


- FY2006 보증보험 손해율은 최근 보증보험의 낮은 사고발생률과 원수보험료의 높은 성장, 구상이익의 증가로 9.2%의 낮은 손해율이 예상됨.
- FY2007에는 원수보험료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사고발생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경우 손해율은 19.3%로 상승할 전망이다.

<표 IV-23> 보증보험 손해율 전망

(단위 : %)

구분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FY2005(E)	FY2006(F)
손해율	208.3	42.0	44.1	25.3	2.9	9.1	19.3

<그림 IV-19> 보증보험 손해율 추이

5) 특종보험

○ FY2007 특종보험의 원수보험료는 대부분 종목에서 전년도에 비해 성장이 둔화되어 전년 대비 4.5% 증가한 2조 6,137억원으로 전망됨.

-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는 종합보험은 고객들의 패키지화 선호, 방카슈랑스를 통한 꾸준한 판매 등으로 전년도 보다 시장이 다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기술보험은 건설투자 부문의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될 전망되나,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기술보험 수요 증가도 제한적일 것임.

- 책임보험은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을 중심으로 보험료 인하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보험료 성장이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상해보험은 판매가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FY2006 특종보험 원수보험료는 책임보험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반면, 상해보험의 높은 성장률과 종합보험, 기술보험의 양호한 성장으로 인해 전년 대비 6.4% 증가한 2조 5,011억원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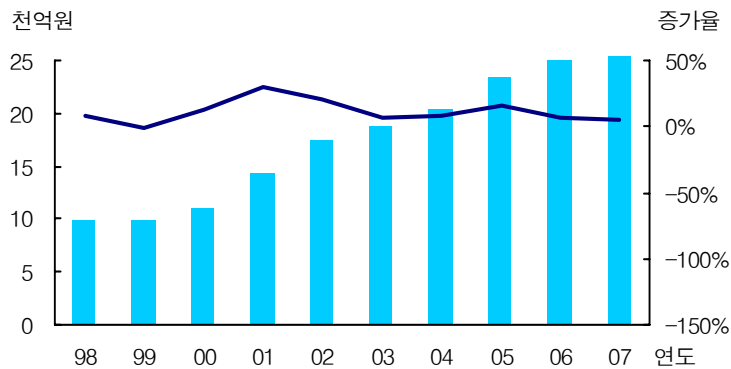
<표 IV-24> 특종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구분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FY2006(E)	FY2007(F)
원수보험료	14,430	17,484	18,741	20,369	23,513	25,011	26,137
증가율	29.5	21.2	7.2	12.7	11.0	6.4	4.5

주 : 해외원보험, 부수사업 포함 실적임.

<그림 IV-20> 특종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 FY2006 특종보험 손해율은 상해보험의 손해율 상승으로 53.6% 다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FY2007에는 50.2%의 손해율이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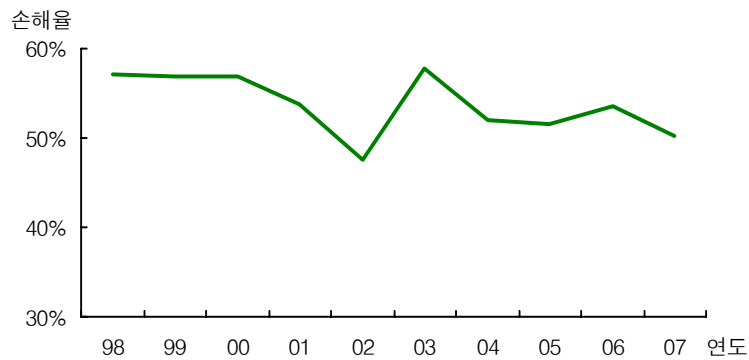
- FY2006에는 단체상해보험에서의 일시적인 손해율 급등으로 인하여 특종보험 전체 손해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를 감안할 때, FY2007 특종보험 손해율은 보험료 성장둔화, 상해보험을 중심으로 한 사고 발생 증가 등 상승요인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FY2006보다는 개선된 손해율을 나타낼 전망이다.

<표 IV-25> 특종보험 손해율 전망

(단위 : %)

구분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FY2006(E)	FY2007(F)
손해율	53.8	47.5	57.8	52.0	51.6	53.6	50.2

<그림 IV-21> 특종보험 손해율 추이



가) 기술보험

- FY2006 기술보험은 전년 대비 8.5% 성장한 3,129억원의 보험료가 거수될 것으로 예상되며, FY2007에는 7.1% 성장한 3,351억원으로 전망됨.
- FY2006에는 건설투자 증가율이 -1.2%로 마이너스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보험료 인하 조정이 적용됨에 따라 과거보다는 낮은 성장

률을 보일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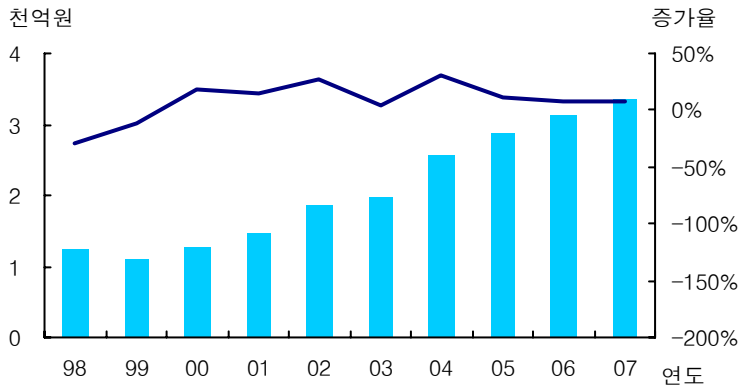
- FY2007에도 건설 및 설비투자 부문 성장률이 소폭 회복에 그칠 전망으로 기술보험 시장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하지는 못할 것임.

<표 IV-26> 기술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구분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FY2006(E)	FY2007(F)
원수보험료	1,473	1,872	1,962	2,572	2,884	3,129	3,351
증가율	15.3	27.1	4.8	31.1	12.1	8.5	7.1

<그림 IV-22> 기술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나) 배상책임보험

- FY2007 배상책임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2.9% 성장한 4,644억 원으로 예상되며, FY2006에는 전년 대비 -5.1% 성장한 4,783억원 추정되어 당분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배상책임보험은 2005년 1월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등 꾸준한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인하 조정

적용으로 FY2005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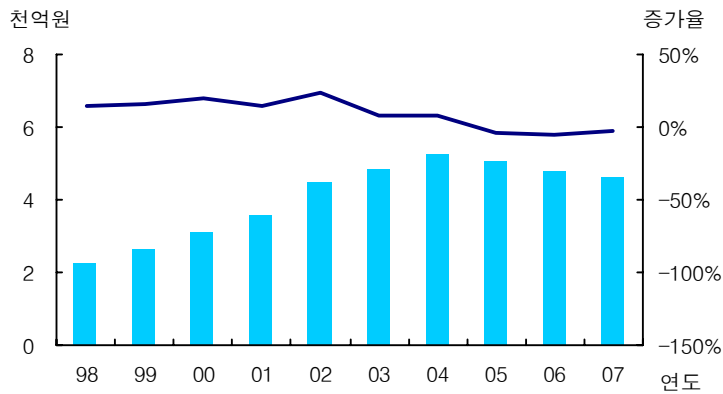
- FY2007에도 배상책임보험의 수요 변화보다는 근로자재해배상책임보험 등 대부분 종목에서의 보험요율 인하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낼 전망이다.

<표 IV-27> 배상책임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구분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FY2006(E)	FY2007(F)
원수보험료	3,602	4,468	4,835	5,243	5,040	4,783	4,644
증가율	15.0	24.0	8.2	8.4	-3.9	-5.1	-2.9

<그림 IV-23> 배상책임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다) 상해보험

- FY2007 상해보험은 전년 대비 5.8% 성장한 6,171억원의 보험료 규모가 전망되며, FY2006은 26.8% 성장한 5,833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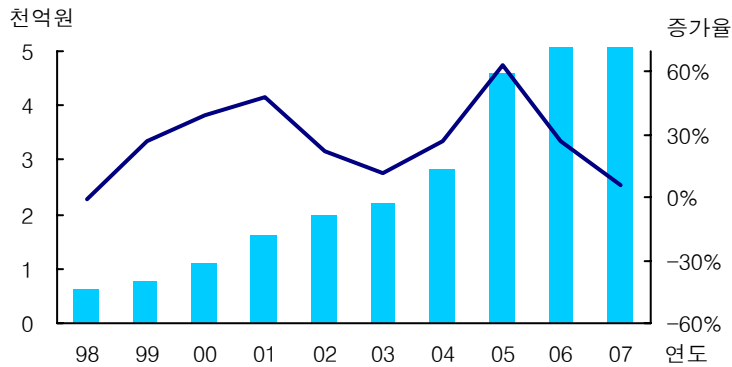
- 상해보험은 주 5일 근무제의 정착, 단체상해보험의 가입 증가, 홈쇼핑 등 TM/CM을 통한 판매 확대 등에 기인하여 높은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음.
- 상해보험의 성장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FY2007에는 보험료 인하 요인으로 성장률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표 IV-28> 상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구분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FY2006(E)	FY2007(F)
원수보험료	1,623	1,991	2,216	2,818	4,600	5,833	6,171
증가율	47.9	22.7	11.3	27.2	63.2	26.8	5.8

<그림 IV-24> 상해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라) 종합보험

- FY2007 종합보험은 전년 대비 4.7% 성장한 9,782억원의 원수보험료 규모를 나타낼 전망이며, FY2006의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6.3% 성장한 10조 398억원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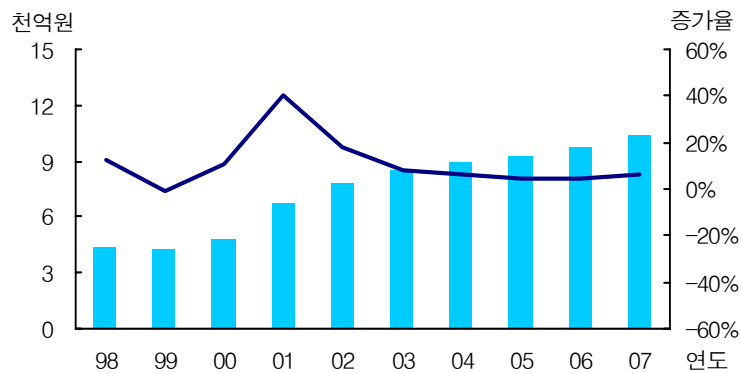
- 종합보험은 패키지형 보험에 대한 꾸준한 수요 확대로 인해 기업성 종합보험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가계성 종합보험의 원수보험료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특히 주 5일 근무제 등 여행 및 레저활동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가계성 종합보험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임.
- FY2007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종합보험의 원수보험료는 6.3%의 성장을 나타낼 전망이다.

<표 IV-29> 종합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구분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FY2006(E)	FY2007(F)
원수보험료	6,701	7,874	8,477	8,977	9,343	9,782	10,398
증가율	40.7	17.5	7.7	5.9	4.1	4.7	6.3

<그림 IV-25> 종합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6) 장기손해보험

○ FY2007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최근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 대비 15.3% 성장한 15조 3,223억원을 나타낼 것이며, FY2006에는 전년 대비 17.6%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정됨.

- FY2006 장기손해보험은 통합형보험의 급성장세와 상해 및 질병부문에 대한 꾸준한 수요, 방카슈랑스를 통한 저축성보험 판매 확대에 인하여 17.6%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됨.

- FY2007에는 내수 위주의 경기둔화세에도 불구하고, 장기손해보험은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우선 고령화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는 상해 및 질병부문의 가입을 꾸준히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각 보험회사에서도 통합형 보험 등 손해보험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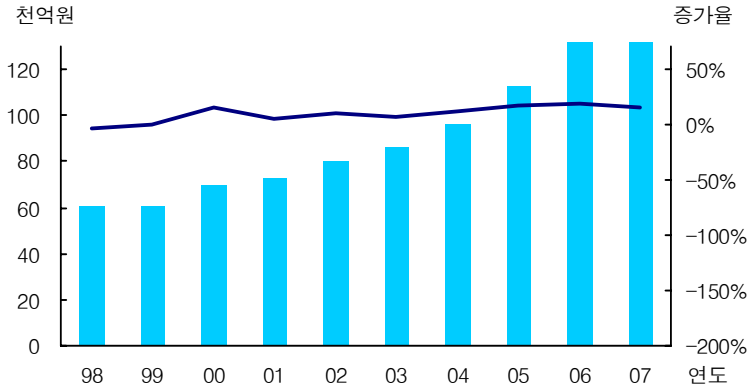
· 이와 더불어 2006년 10월 방카슈랑스를 통한 환급형 제3보험의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저축성보험과 함께 장기손해보험 보험료 수입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표 IV-30>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구분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FY2006(E)	FY2007(F)
원수보험료	72,882	80,134	85,794	96,353	112,562	132,329	153,223
증가율	5.0	10.0	7.1	12.3	16.8	17.6	15.8

<그림 IV-26>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 FY2006 장기손해보험 손해율은 상해 및 질병 부문의 지급보험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원수보험료의 높은 성장세, 특히 통합형보험의 급성장과 판매초기 낮은 사고율로 인하여 85.1%의 개선된 수준을 보일 것임.
- FY2007에도 보험료의 지속 성장 전망과 통합형보험이 판매 초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장기손해보험 전체 손해율은 53.3%로 안정적인 것으로 전망됨.
- 단, 통합형보험을 제외한 상해 및 질병부문의 손해율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손해보험의 보장성 부문에 대한 손해율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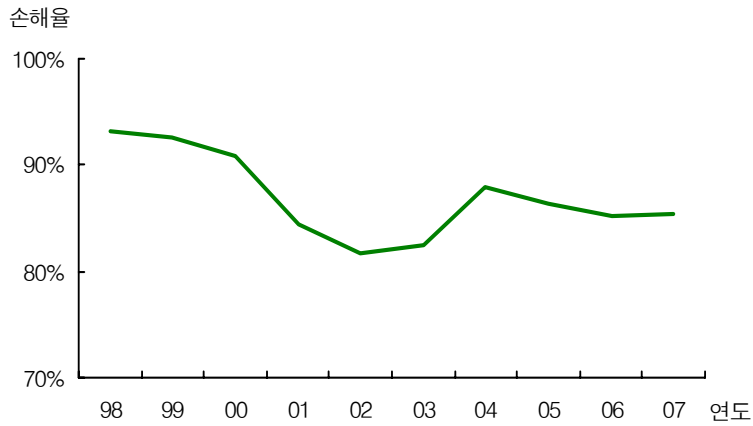
<표 IV-31> 장기손해보험 손해율 전망

(단위 : %)

구분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FY2006(E)	FY2007(F)
손해율	84.4	81.6	82.4	87.9	86.4	85.1	85.3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V-27> 장기손해보험 손해율 추이



7) 개인연금보험 및 퇴직보험(퇴직연금)

○ FY2006 개인연금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6,331억원으로 전망되며 FY2005에는 -3.5% 증가한 6,561억원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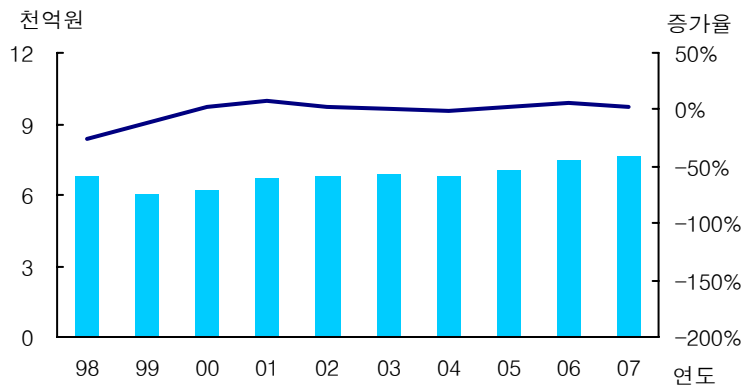
- 고령화에 따른 노후 생활 자금 마련의 필요성 증가로 인하여 향후 개인연금시장의 잠재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저금리 기조에 따른 자산운용의 어려움, 보험기간의 장기성에 따른 시장수요 감소 등으로 개인연금보험의 성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표 IV-32> 개인연금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구분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FY2006(E)	FY2007(F)
원수보험료	6,678	6,786	6,873	6,799	6,976	7,418	7,574
증가율	8.5	1.6	1.3	-1.1	2.6	6.3	2.1

<그림 IV-28> 개인연금 원수보험료 추이



○ FY2007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의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2.5% 증가한 6,885억원으로 전망되며, FY2006은 전년 대비 -13.1% 증가한 6,697억원으로 추정됨.

-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아직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신규 가입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며, 기존 퇴직보험의 퇴직연금으로 전환시 타 금융권으로의 이탈 등으로 손해보험산업에서의 퇴직연금 시장은 높은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표 IV-33>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구분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FY2006(E)	FY2007(F)
원수보험료	2,865	4,401	4,949	5,622	7,707	6,697	6,885
증가율	-25.1	53.6	12.4	13.6	37.1	-13.1	2.5

V. 보험산업 주요과제

1. 現 보험산업 평가

- 현재 보험산업은 종목별로 성장성 차별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생·손보 모두 내실화를 통한 수익성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금융상품을 놓고 타 금융권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음.

가. 성장성 측면

- 생명보험의 경우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의 정착이 부진하고, 종신보험의 성장세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FY2004 이후 본격적으로 전체 성장을 견인하던 변액보험의 성장세가 FY2006 들어 둔화되고 있음.
- 손해보험의 경우 장기보험의 상해 및 질병보험이 성장을 견인하는 추세이며, 특히 FY2005 이후에는 장기손해보험에서 통합형보험의 성장기여도가 높아지고 있음.

<표 V-1> 주요 보험종목의 연도별 성장기여율^{주1)}

(단위: 억원)

		FY02	FY03	FY04	FY05	'06.4~9
생명보험	변액	11.2	42.6	48.1	77.7	78.2
	종신	235.4	153.0	46.9	-3.0	1.0
손해보험	장기상해질병	41.5	77.7	27.4	21.5	39.4 ^{주2)}
	통합형	-	-	-	28.8	43.6 ^{주2)}

주 : 1) 전체 수입보험료 증가액에서 각 종목의 증감액이 차지하는 비중임.

2) '06.4~8월 기준임.

나. 수익성 측면

- 생명보험의 경우 사망보험의 비차익 감소가 지속되고 사망보험금지급률 상승에 따라 보험영업이익이 축소되고 저금리로 인해 투자영업이익이 부진하면서 당기순이익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임.
- 손해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높은 손해율로 인해 전체 보험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영업 부문의 수익률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좌우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

<표 V-2> 보험산업의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억원)

		FY02	FY03	FY04	FY05	'06.4 ~ 8
생명보험	보험영업이익	120,581	98,356	101,395	71,669	41,991
	투자영업이익	82,338	94,567	107,412	102,400	43,623
	당기순이익	28,320	15,874	21,051	20,972	3,433
손해보험	보험영업이익	210	-5,953	-3,414	-4,908	-2,477
	투자영업이익	8,860	14,951	19,451	20,841	7,810
	당기순이익	9,057	8,998	16,044	15,932	3,890

다. 타 금융권과의 경쟁 심화

- 고령화의 빠른 진행으로 은퇴소득을 대비하기 위한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각 금융권별로 이와 관련된 상품이 다양하게 출시되어 업권간 경쟁심화가 예상되므로 보험회사의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될 상황.
- 금융상품 측면의 경쟁뿐만 아니라 방카슈랑스 확대에 따라 판매채널의

중속화가 심화되어 보험회사가 확고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상품 제조업자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2. 주요 경영 과제

가. 판매채널 다변화에 대응

- 방카슈랑스와 독립대리점의 판매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이들 판매채널이 보험회사와의 수수료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험료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판매채널에 보험회사가 중속될 수 있음.
-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세분화된 고객 및 상품의 특성에 맞게 판매채널을 활용함으로써 비용효과성이 높게 보험상품을 전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나치게 특정 독립채널의 비중이 높을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채널을 개발함으로써 특정 독립채널의 독주를 차단하여 보험회사가 판매채널에 중속되는 현상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보험회사가 판매채널의 명성을 활용하기보다는 회사 차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거나 출시되는 보험상품 범주별로 브랜드를 구축함으로써 판매채널을 지배하는 것도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음.

나. 소비자 니즈 반영이 유리한 전문영역 확보

-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자산규모가 작고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양한 보험종목을 판매하는 종합보험회사를 지향하고 있어 변화하는 소

비자 니즈를 예측하고 반영하기 힘들어 결국에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음.

- 생·손보 모두 대형사를 제외한 중소형사의 경우 상품개발, 마케팅 및 영업관리, 언더라이팅, 손해사정 등의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미흡한 상황임.
-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하고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로 무리하게 시장점유율 확장 위주의 전략으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사업비 경쟁력 약화에 따라 수익성 악화로 귀결됨.

○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취약한 보험사의 경우 소비자 니즈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상품이나 종목 중심의 조직 편제에서 벗어나 자사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조직 편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소형사의 경우 지역별, 상품별, 고객별 데이터를 분석하여 자사의 비교우위가 존재하는 분야에서 핵심역량을 활용하는 사업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 핵심역량 부문에서는 자원을 집중 배분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비핵심 업무의 경우 아웃소싱이나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비용구조의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리스크 관리 능력 강화

○ 금융시장 주요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복잡한 파생상품의 출현으로 인하여 과학적인 리스크 분석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금융거래에 참여할 경우 대규모 손실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

- 국내외 경기변동 및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금리, 주가, 환율 등 주요

변수의 변동성이 과거에 비해 높아짐.

- 이와 함께 감독 당국에서도 RBC, RAAS, 리스크 공시 강화 등 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나 보험회사는 위험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인해 소극적 대응에 그치고 있는 상황임.
- 경영의사 결정시 리스크 분석결과를 기초하여 수익성과 연결시키는 프로세스를 확립하여 리스크 중심의 경영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개별 보험회사의 실정에 맞는 리스크관리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회사의 여력에 따라 전문성 제고를 중심으로 점진적인 조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리스크관리 담당자에 대한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위험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
- 리스크 공시항목의 확대에 따라 소비자, 투자자 등 다양한 관계자들에게 회사의 영업성과와 관련된 많은 사항이 노출되므로 공시항목을 중점으로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에 매진할 필요가 있음.
-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라 부채의 시가평가로 인해 준비금과 당기순이익이 빈번하게 변동할 수 있으므로 재무건전성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라. 보험회사의 글로벌화

- 한·미 FTA가 체결되고 국내 금융시장 개방이 확대될 경우 국제적 경쟁에 노출되므로 해외 신흥시장 개척을 통한 글로벌 보험회사로 약진할 필요가 있음.

- 전통적으로 내수산업이라 간주되던 생명보험업조차도 글로벌시장이 형성되어 글로벌 보험회사가 국제 보험시장을 선도하고 있음.
 - 국내 대형 보험회사의 경우 국내 시장에서의 우위에 안주하지 않고 국제적 보험회사로 도약하여 성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노력하는 보험회사 공동으로 해외 전략 지역에 정보 수집을 위한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수집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직을 운영함으로써 초기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글로벌 보험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상품개발, 언더라이팅, 마케팅 전략 등에서 선진화가 요구되며, 이를 이해서는 현지 연수 확대, 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인재 확보, 사내 교육프로그램 확충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마. 타 금융권과 차별화된 상품개발 및 자산운용능력 배양

- 다른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소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들 세대를 위한 금융상품을 놓고 보험, 은행, 증권 등의 모든 금융권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 은행은 타 금융권에 비해 높은 인지도와 전국적인 지점망을 바탕으로 예적금과 신탁상품을 통해 은퇴관련 금융상품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음.
 - 증권 및 투신권의 경우에도 간접투자시대의 도래와 함께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적립식 펀드 등 다양한 주식 및 채권형 상품을 통해 은퇴소득 시장을 점유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은행, 증권, 투신 등은 보험회사에 비해 자산운용 능력이 뛰어나 투자자들에게 보다 매력적인 투자상품을 제공하고 있음.
- 보험회사는 은퇴 이후 건강, 요양, 문화생활 등 다양한 소비자 니즈를 반영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제공하는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타 금융권과 상품 측면에서 뚜렷한 차별화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
 - 은행, 증권 및 투신의 경우 투자수익을 제공하면서 리스크 차이만 존재하는 금융상품을 제공하므로 보험회사는 통합보험의 성공사례와 같이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상품에 중점을 두어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 보험의 본래 기능과 투자수익을 결합한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판매 제고를 도모할 수 있겠지만 불완전 판매로 인한 기업 이미지 훼손 위험이 큰 상품은 무리하게 개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주식, 채권, 외환,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한 전문 운용인력을 채용 및 양성하여 투자수익을 제고함으로써 타 금융권과 투자부문에서 경쟁력을 배양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험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대상 자산의 범위가 넓어지고 또한 그러한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포함할 필요성도 높아지므로 다양한 자산에 대한 전문지식을 겸비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부록> 보험산업 주요 전망치 요약

1. 보험산업 주요 지표

항 목	FY2005	FY2006(E)	FY2007(F)
수입보험료(억원, 성장률)			
- 생명보험	614,722(14.4%)	669,606(8.9%)	719,401(7.4%)
- 손해보험	257,235(10.8%)	286,454(11.4%)	315,843(10.3%)
- 전 체	871,957(13.3%)	956,060(9.6%)	1,035,244(8.3%)
보험침투도(%)*			
- 생명보험	7.6	7.9	8.1
- 손해보험	3.2	3.4	3.6
- 전 체	10.8	11.3	11.7
1인당보험료(천원)			
- 생명보험	1,277	1,386	1,485
- 손해보험	534	593	652
- 전 체	1,811	1,979	2,137
생손보 구성비(%)	70.5 : 29.5	70.0 : 30.0	69.5 : 30.5
총자산(조원)			
- 생명보험	239.4(13.1%)	271.7(13.5%)	301.6(11.0%)
- 손해보험	49.3(13.6%)	56.1(13.8%)	63.6(12.8%)
- 전 체	288.7(13.2%)	327.8(13.5%)	364.9(11.3%)

- 주 : 1) 보험침투도는 (총수입보험료/경상GDP×100)임.
 2) 괄호안 숫자는 전년대비 억단위 증가율임.
 3)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임.

2.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전망치

(단위 : 억원, %)

보험종목	FY2004		FY2005		FY2006(E)		FY2007(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생명보험	생 존	131698	9.1	159,305	21.3	183,919	15.5	204,649	11.3
	사 망	262971	13.4	278,492	5.9	293,052	5.2	315,795	7.8
	생 사	85801	-9.6	109,725	27.9	116,338	6.0	119,208	2.5
	소 계	480140	7.4	547,521	14.0	593,308	8.4	639,653	7.8
	단 체	57366	1.1	67,201	17.1	76,298	13.5	79,748	4.5
	합 계	537506	6.7	614,722	14.4	669,606	8.9	719,401	7.4
손해보험	화 재	2,937	-7.1	3,242	10.4	3,083	-4.9	3,290	6.7
	해 상	5,071	-3.2	5,277	4.1	6,084	15.3	5,957	-2.1
	- 선박	1,848	6.0	2,166	17.2	2,419	11.7	2,533	4.7
	- 적하	2,373	13.2	2,163	-8.8	2,126	-1.7	2,060	-3.1
	- 항공	615	-46.8	589	-4.2	1,023	73.7	1,045	2.1
	자동차	85,208	7.0	87,890	3.1	93,826	6.8	100,326	6.9
	- 책임	30,210	9.7	31,253	3.5	33,496	7.2	35,836	7.0
	- 임의	54,998	5.6	56,636	3.3	60,330	6.5	64,489	6.9
	보 증	9,018	-4.3	10,067	11.6	12,007	19.3	12,451	3.7
	특 종	21,181	13.0	23,513	11.0	25,011	6.4	26,137	4.5
	- 기술	2,572	31.1	2,884	12.1	3,129	8.5	3,351	7.1
	- 책임	5,243	8.4	5,040	-3.9	4,783	-5.1	4,644	-2.9
	- 상해	2,818	27.2	4,600	63.2	5,833	26.8	6,171	5.8
	- 종합	8,977	5.9	9,343	4.1	9,782	4.7	10,398	6.3
	장 기	96,353	12.3	112,562	16.8	132,329	17.6	153,223	15.8
	개 인	6,799	-1.1	6,976	2.6	7,418	6.3	7,574	2.1
	퇴 직	5,622	13.6	7,707	37.1	6,697	-13.1	6,885	2.5
합 계	232,189	8.6	257,235	10.8	286,454	11.4	315,843	10.3	

주 : 특종보험에는 해외원보험과 권원보험, 부수사업이 포함됨.

3.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

(단위 : %)

경제지표	CY2004	CY2005	CY2006(E)	CY2007(F)
실질GDP	4.7	4.0	4.9	4.5
민간소비	-0.3	3.2	4.2	3.9
설비투자	3.8	5.1	7.5	4.7
건설투자	1.1	0.4	-1.2	1.4
경상수지(US\$억)	281.7	149.8	16.1	-53.2
소비자물가(상승률)	3.6	2.8	2.5	3.0
국고채(3년)(연평균)	4.1	4.3	4.8	4.9

저자약력

이 태 열

Iowa State University 경제학박사
현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연구조정실장/동향분석팀장
(E-mail : tylee@kidi.or.kr)

최 영 목

중앙대학교 경영학박사
현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동향분석팀 부연구위원
(E-mail : ymchoi@kidi.or.kr)

조 혜 원

성균관대학교 경영학석사
현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동향분석팀 선임연구원
(E-mail : hwcho@kidi.or.kr)

김 진 역

서울대학교 경영학석사
현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동향분석팀 선임연구원
(E-mail : kjo990@kidi.or.kr)

박 정 희

고려대학교 경영학석사
현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동향분석팀 연구원
(E-mail : pjh@kidi.or.kr)

정책연구자료 2006-1

200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발행일 2006년 11월 일

발행인 김 창 수

편집인 오 영 수

발행처 보험개발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대표전화 (02) 368-4000

ISBN 89-5710-040-7 94320 정가 10,000원